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9호 HYUNBULNEWS.COM 2025년 2월 19일(음력 1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달집은 활활 액운은 훨훨" 을사년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 남양주 봉선사가 2월 12일 경내 범종루와 일주문 일원에서 액운을 태우고 복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사진은 소원지가 걸린 달집에 불을 붙이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참석 대중들의 모습.
〈관련기사 7면〉 남양주 봉선사=김민재 기자

불교 사찰, '이색 회의장소'로 부상

분당 대광사, '성남시 유니크 베뉴'로 선정

관광공사 MICE 유치 사업 일환
사찰 규모, 문화 가치 높이 평가
관계자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국제회의 및 전시 유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교 사찰이 부가가치가 큰 이색 회의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성남시가 2월 11일 발표한 '성남시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에 분당구 소재 천태종 대광사(주지 경혜 스님)가 포함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성남시 유니크 베뉴'는 한국관광공사(대표 직무대행 서영충)가 2017년부터 추진한 '코리안 유니크 베뉴(Korean Unique Venue)'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천년고도이자 불교문화의 중심지 경주가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자 국내 MICE(마이스, 기업 회의·포상관광·이벤트·전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관심과 코로나19 이후 활발해진 국제 MICE 산업 부흥에 따라 전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을 가진 대형 회의·전시 장소를 유치하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 공모는 사업이 시작됐다.

지자체 별로 선정된 시설들은 콘텐츠 개발, 홍보 지원, 국제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선발된 시설에 대해 MICE 행사 유치와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광사가 이색 회의 장소로 선정된 데는 사찰이 가진 넓은 공간과 전통문화적 가치가 크게 작용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대광사는 성남시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동양최대 규모 목조건축인 미륵보전과 국내 최고 높이 미륵대불 좌상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찰 내 명상대학 강의실은 150여 명 인원을 수용 가능해 대규모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대형 국제 행사가 성남시에서 유치되면 행사 주최진에게 대광사가 가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등 부대 프로그램을 포인트 삼아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장소로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광사는 성남시를 대표하는 MICE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대광사 주지 경혜 스님은 "명상 등 사찰 콘텐츠를 확대 개발해 방문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시설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동국대 '전법특임교수' 신설·운용 나선다

'전법특임교수' 제도 시행… 전법 인프라 강화

동아리 지도법사단 '업그레이드'
지위 보장, 전법 활동 독려 기대
지도법사 중 박사 수료 이상 대상
2월 19일 총장-지도법사 간담회
2월 27일 '전법특임교수 임용식'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교내 전법을 담당할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기존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캠퍼스 포교·전법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는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2025년부터 신설 및 운영해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불교의 진리와 다양한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교내외 전법포교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수행하는 교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다. 이에 대해 동국대 건학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내 불교동아리의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스님들은 자신의 연구와 학업활동 이후 남는 시간을 이용해 활동해왔다. 또한 강의 등 전법영역을 확대하고 싶어도 신분제약 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신설·운영하는 '전법특임교수'제도는 현재 불교동아리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단의 적극적인 전법포교 활동을 지원하고 전법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의 원력을 바탕으로 한다. 평소, 돈관 스님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지위 보장을 통한 전법활동 확대를 강조해왔다. 이는 교내 전법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확보해주고,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캠퍼스 전법을 추진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동국대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 도입하는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임용절차를 2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동국대 불교동아리(서울캠퍼스·WISE캠퍼스 단과대학 등) 지도법사 중 박사과정을 수료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지도법사는 전법특임교수 위촉대상자로 분류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새로 임용되는 전법특임교수는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 사무국 소속으로, 서울캠퍼스 신행활동 지도와 불교동아리 신행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맡는다. 1년 단위로 임용되며, 연간 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동국대 관계자는 "전법특임교수로 임용된다는 것은 권한과 혜택만큼 책임 따른다. 매월 학내 전법 활동 평가를 받아야 하며, 연간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평가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재임용 여부도 결정된다"면서 "새로 신설·운영되는 '전법특임교수' 제도가 캠퍼스 전법포교행의 전문화와 관련 인프라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전법특임교수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2월 19일 총장-지도법사단 간담회를 열고 신설 제도에 논의를 진행한다. 전법특임교수 추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임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학기 시작 전인 2월 27일 정각원 법당에서 전법특임교수 임용장 수여 및 지도법사 위촉을 개최할 계획이다.

조계총림 방장 선출 산중총회 열린다

3월 6일 송광사 자재원서
수좌 현묵 스님 추천 예정



조계총림 방장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열린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3월 6일 오후 1시 경내 자재원에서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광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임회를 열고 차기 방장 후보로 송광사 수좌 편양 현묵 스님〈사진〉을 추천했다. 이번 산중총회는 현묵 스님을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총림 방장 추대는 교구 산중총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종회의 의결로 이뤄진다.

산중총회 소집대상자는 교구 재적 승 중 법계 중덕·정덕 이상, 본말사 주지스님이다. 신고기간은 2월 11일부터 17일이며, 구성원명부 열람기간은 2월 25~27일이다.

현묵 스님은 1971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5년 송광사 선원을 시작으로 전국 제방선원에서 90안거를 성만했다.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송광사 유나를, 2023년부터 송광사 수좌와 수련원장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myogong@daehaeng.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10 대행선연구원

제8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 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및 불교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 **공모기간** : **2025년 3월 1일(토)~31일(월)**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제7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통합과정 포함) 및 박사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 **선발인원** : 0명(스님은 별도 전형)
- **공모기간** : **2025년 3월 1일(토)~31일(월)**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한마음연구』원고모집

- **발간시기** : 연 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대행선연구원

KAIST 간 진우 스님 "양자역학 '空 사상' 일맥상통"

진우 스님, 2월 10일 카이스트 특강
'양자역학·중도' 주제 교수에 강연
"선명상 수행, 과학 연구에 도움"
선명상 대중확산 계획도 밝히기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카이스트에서 '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불교와 양자역학의 철학적 접점을 조명하며 연기법, 공 사상, 중도 등의 개념이 현대 과학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진우 스님은 2월 10일 카이스트 본원에서 '의상조사 법성게와 해인도를 통해 본 양자역학과 중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보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카이스트는 학과장 이상 보직 교수들의 인문사회 리더십 강연 모임 '매세월 서연(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서연)'을 통해 교수들이 만나 서로의 학문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의상 스님의 화엄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불교와 과학'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원인과 결과는 상호의존적으로 상관하는 관계에 있음을 뜻하는 '연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자역학'과 불교 핵심 사상인 '공 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상을 탐구하는 방식에서 유사한 접근법을 가진다는 것. 진우 스님은 "불교는 존재를 그대로 바라보며 현상이 상호의전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설명한다"면서 "과학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밝히려 하며, 특히 양자역학은 실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고 피력했다.

색즉시공과 파동-입자의 이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양자역학에서 물질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개념과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스님은 "보이는 물질(色)도 궁극적으로는 공(空)한 성질을 가진다"면서 "물질은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양자역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카이스트 강연에서 양자역학과 불교의 연계성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조계종

관찰자의 역할과 유식론(唯識論)에서도 스님은 "관측자가 개입해야 물질의 상태가 결정되는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는 불교 유식학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개념과 유사하다"면서 "유식론은 외부의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에 대해 제행무상(諸行無常) 개념과도 연결된다고 강조한 스님은 "모든 존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제행무상은 물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측정 순간마다 상태가 다르다는 불확정성 원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명상의 과학적 효과에서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선명상이 과학자들의 창의성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스님은 "현대 연구에서는 명상이 뇌의 집중력, 감정 조절, 스트레스 해소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불교의 명상 수행법이 집중력 향상과 사고의 명확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AI와 불교적 통찰, 환경문제와 불교적 시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비쳤다.

이번 강연은 불교와 현대과학의 만남을 통해 실제(reality)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조명하는 자리로 양자역학과 불교 사상 간의 철학적 연계성을 분석하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이광형 총장은 "앞으로 카이스트명상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명상의 과학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기반을 구축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연기법과 양자역학의 얽힘, 공 사상과 파동-입자 이중성, 관찰자 효과와 유식론 등의 개념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현대 과학이 탐구하는 물질 세계와 불교가 추구하는 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연 후기를 남겼다.

조계종은 양자역학 연구자 김갑진 교수 등을 불교계에 초빙, 선명상과 과학의 만남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담양 선명상센터 순항"

김영록 전남지사 "5월 중 완료"



국민 정신 건강을 도모하고 간화선 중흥을 목표로 조계종 37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 담양 선명상센터 건립이 오는 5월 중에 마무리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담양 선명상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사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재 담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명상센터 건립 사업이 5월 중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총무원장 스님이 강조한 선(禪)문화와 명상 대중화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최근 제주항공 참사를 포함해 많은 사회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마음을 치유할 선명상을 보급하고 연구할 선명상센터 건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인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대립과 양극화가 심해지기 마련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전라남도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화답했다.

이어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수습을 지원한 종단과 총무원장 스님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전남지사는 "종단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덕분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참사 유가족이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 "종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나서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지금도 참사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계가 당연히 국민을 위해 동참하고 수습해야 할 문제다. 김 지사가 수습 과정을 잘 이끌어 유족을 위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법오 스님, 사회부장 진경 스님, 사서실장 일감 스님과 강효석 문화융성국장, 김규웅 대변인, 장혁 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김민재 기자

"사찰서 '국립공원의날' 행사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 2월 11일
원주 사찰서 행사 계획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만나 환담하고 3월 3일 국립공원의날 기념식을 사찰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사진〉

이날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과 사찰림은 환경부의 업무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스님들이 사찰림을 보존했기에 국립공원이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대산이나 치악산 등 국립공원 주요 지역은 사찰을 중심으로 산림이 잘 보존된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장관은 "조계종과 국립공원은 관련이 많고, 스님들이 환경 보존에 이바지한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 노고가 큰 만큼, 3월 초 열리는 국립공원의날 기념식을 국립공원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 사찰에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해 대구 엑스코에서 국립공원의 날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20년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사 정월 사천왕재…한 해 안녕 기원

2월 12일 일주문서…1000명 모여


조계사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주지 원명 스님이 향을 올리고 있다.

거센 눈발이 서울 도심을 뒤덮은 정월대보름 새벽, 사천왕상이 조성된 조계사 일주문 앞에는 1000여 명의 불자가 모였다. 한 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은 추위도, 불편함도 막지 못했다.

2월 12일 오전 7시 조계사는 하루를 여는 명종 11타와 함께 '길상성취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불자들을 보호하는 사천왕에게 나와 가족, 이웃,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복덕과 평화를 비는 의식이다. 정초 신중기도 대미를 장식하는 사천왕재는 2018년 정월대보름마다 조계사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그 전통을 이어갔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사중스님들, 신도회 등은 경내 대웅전에서 일주문까지 업장소멸과 만사형통을 발원하는 '희망의 초'를 이운했고, 곧이어 기도의식을 거행했다. 기도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불자들은 향을 올리며 각자 한 해 소망을 기원했다.

원명 스님은 불자들에게 청정수를 뿌려 정화의 의미를 더했고, 사중스님들은 팔을 뿌려 액운을 쫓았다.

원명 스님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지만, 마음이 따뜻해서인지 춥지 않다. 올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늘 기도 공덕으로 잘 극복해 내고, 모든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길 기도한다"며 "사천왕님들의 가피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무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편 사천왕재를 마친 후에는 동안거 기도 회향과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인 지신밟기가 진행됐다.

김내영 기자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5년 양력 3월 7일 금요일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휴대폰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 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 보조 정심법사님
오후 1시 화청연습 정덕스님
오후 2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魚山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선명상 특화사찰 운영…국민 평안 앞장”

문화사업단, 2월 11일 신년 간담회
30곳 선정해 선명상 중심지 역할
선명상대회 · APEC 연계한 체험도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등재 목표
6월, 전시 · 경연대회 등 한자리서
홈페이지 개선으로 맞춤 검색 가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11일 관내 화엄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불안과 스트레스 증가로, 국민 정신건강 함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부터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을 정식 운영하는 등 국민 내면의 평화와 행복 확산에 앞장선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은 2월 11일 관내 화엄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사업단은 올해도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국민 행복을 위한 선명상 템플스테이 확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연계 특별프로그램 운영 △템플스테이·사찰음식 지역관광 마케팅 기반 강화 △지역 연계 사회 공익 템플스테이 확대 등을 사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국민에게 다가설 계획이다.

우선 국민 내면의 평안을 실현하는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158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가운데 57개 사찰이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참가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특화사찰’ 30곳을 선정, 각 지역에서 선명상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명상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스님과 지도법사, 실무를 대상으로 선명상의 원리와 이해, 각종 명상법 실참 등을 포함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특화사찰을 중심으로 ‘2025 국제선명상대회’ 기간과 연계해 전국적 특별주간도 운영한다. 전국 약 100개 사찰에서 총 2500명(내국인 2000명, 외국인 500명)의 내외국인들이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2025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와 연계해서도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경주 불국사,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를 주축으로 템플스테이·사찰음식 팸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선명상 등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이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문화외교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업무 환경 개선과 전문 인력의 이탈 방지가 꼭 필요하다”며 “내실을 다지고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교전통문화의 한 축인 사찰음식도 올해 문화사업단이 집중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특히 올해는 사찰음식의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목표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다. 오는 6월 7~8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찰음식의 전통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15년 이후 10년만에 다시 열린다. 사찰음식 대축제에서는 사찰음식의 원형과 전통이 담긴 전시, 지역 사찰음식 부스, 어린이 미각교실, 사찰음식 경연대회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찰음식의 국제화도 본격화된다. 프랑스의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와 협력해 사찰음식을 채식전문과정 정규과목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는 미국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영국 옥스퍼드대, 이탈리아 미식과학대 등과 학술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8월 관련 연구자를 초청해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사찰음식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할 계획이다.

만당 스님은 “사찰음식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조리 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사찰음식의 개념과 범주, 방법을 정리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잘 다듬어 올해 안에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템플스테이를 강화한다. 청년,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제공해 몸과 마음의 치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역 연계형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차, 버스, 렌터카 등 다양한 이동수단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및 사찰음식 체험 상품을 개발하고, 불교문화체험을 더욱 쉽고 친근한 콘텐츠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홈페이지를 전면 리뉴얼하고, 오는 2월 20일 오픈한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개인 맞춤형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고도화된 예약 시스템을 제공한다. 심지어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해외 결제 시스템과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해 글로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동시에 사진, 연구물, 건축물, 영상 등 20여 년간 축적된 자료를 통합해 불교문화콘텐츠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도 구축한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9년 정식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단계별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당 스님은 “불교문화의 가치는 단순히 종교적 차원을 넘어 인류 보편적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다”며 “문화사업단은 앞으로도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와 자연의 아름다움’ 담긴 사진 공모

도반HC, 불교달력 사진 · 작품 공모전
3월 31일까지 접수…대상에 1천만원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원명 스님)가 ‘제5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작품의 주제는 ‘불교와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불교 달력으로 제작 가능하고, 불교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사진이나 미술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도반HC는 “불교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조화롭게 담는 등 특정 주제를 정해 12컷의 사진이나 미술 작품으로 구성”하라고 출품의 요령을 귀띔했다. 그러면서 “동자승의 사진을 출품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며 “캘리그래피, 일러스트, 판화, 수묵화, 어반스케치 등 화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창작 방식이 응모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응모 기간은 2월 21일~3월 31일이며 ㈜도반HC 홈페이지(www.dobanhc.co.kr)에서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작성, 작품과 함께 이메일(dobancalendar@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 크기 : 가로·세로 400mm 이상 / 해상도 300dpi 이상 △ 확장자 : jpg, jpeg, png 이미지 파일(출품자명.zip으로 압축 후 제출) △ 파일명 : 사진 (촬영 장소_작가명) / 미술 (작품명_소재_크기_작가명). 수작업의 경우는 고화질 스캔본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 1명(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표이사 원명 스님은 “인문학적 소양과 새로운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춘 실력 있는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수상자는 4월 11일 개별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시상식은 4월 18일 예정이다. 우편과 방문 접수 불가. 02-0671-0678 **임은호 기자**

원각사 520년만의 재건…무료급식소도 개소

2월 12일 이전 후 첫 배식 시작
식사 · 간식 300인분 어르신들에
“청년 · 어린이 복지도 확대할 것”



탑골공원 인근에서 30년간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온 사회복지원각이 원각사 재건 불사를 회향하며 새로운 무료급식소의 문을 활짝 열었다.〈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주지 원경 스님)는 2월 12일 이전한 원각사 무료급식소(서울 종로구 종로17길 32)에서 무료 급식을 시작했다. 현장에는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 민일영 전 대법관,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비롯한 봉사자 15여 명이 참석했다.

원각사는 조선 세조10년(1464년)에 낙성돼 연산군에 의해 폐찰됐다. 창건 560년, 폐찰 520년만에 새로운 도량의 문을 열게 된 것.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도량 재건과 정월대보름을 기념하며 어르신들에 점심공양과 함께 땅콩, 콩 백설기, 두유 등 간식을 나눴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점심시간에 맞춰 3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어르신들에 제공했다.

이날 봉사자로 나선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과 민일영 전 대법관은 직접 앞치마를 매고 어르신들에 밥과 반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식사하러 온 어르신들에 음식을 전하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라”며 인사를 건넸다.

공양을 마치고 간식까지 받은 주호점(89, 불광동) 어르신은 “잘 마련된 식사를 배부르고 흡족하게 잘 먹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소외 어르신들을 위해 늘 수고하고 있는 원각사 무료급식소 봉사자 분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은 “10여 년 동안 떠돌이 무료 급식을 하다가 비로소 새 건물과 새 법당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니 더없이 기쁘다”며 “앞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청년, 어린이 복지까지 확산해 갈 수 있는 대원력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봉사자들을 대표해 민일영 전 대법관은 “가장 큰 복은 음식을 나누는 복”이라며 무료급식소 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 전 대법관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그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봉사를 시작했다”면서 “어르신들이 배부르게 식사하고 흐뭇한 표정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다. 앞으로도 많은 이웃들이 봉사에 동참해 함께 이런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가령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4년 7월 17일(수) ~ 19일(금)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문 의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상진 스님 "청산처럼 살면 행복해집니다"

청련사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
2월 12일 경내 대적광전서 봉행
상진 스님 기도 회향 법문 설해
"마음으로 부처님 찾아라" 강조
방생법회 봉행… 꿩 방생하기도

양주=신중일 기자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에서 회주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이 법문을 설하고 있다.

"고려시대 고승 나옹 선사의 게송 중 '청산이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란 구절이 있습니다. 청산과 창공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복(多福)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주 청련사는 2월 12일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삼동결제 해제 회향법회'를 경내 대적광전에서 봉행했다.

향수해례와 육성례, 신중작법, 심향합창단 음성공양 등으로 진행된 이날 회향법회에서 청련사 회주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은 동안거 해제 법문을 통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으라고 대중에게 강조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靑山兮要俄以撫語/ 蒼空兮要我以無垢/ 聊無怒而無惜兮/ 如水如風而終我)'라는 고려 나옹 선사의 게송을 상기시킨 상진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께 부탁만 하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귀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부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청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수행자의 도리이며 삶"이라고 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티가 많다. 그럼에도 타인의 조그마한 티가 있으면 이를 잡아내고 흠집내려고 한다"면서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티가 티를 만든다. 경전에 '너무 사랑하지말고, 너무 미워말라'고 당부한 것도 만나서 괴롭고, 안 만나져서 괴로워서다. 남을 원망하면 스스로 괴로워질 뿐이다. 이런 괴로움을 내려놓아라"고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늘 상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화두를 드는 것"이라며 "부처님을 칭명함에도 입으로만 방긋방긋 부처님을 찾지말라. 염불은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는 염불을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90일 삼동결제 동안 사중스님들은 불자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할 수 있도록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이런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해달라"면서 "불자 여러분도 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문에 앞서 청련사 대중은 90일 삼동결제 기간 동안 기도에 매진해 온 스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삼배의 예를 올리기도 했다.

청련사는 삼동결제 해제 회향 법회와 함께 신중3일기도 회향, 방생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진행된 방생법회에서는 장엄한 방생의식이 봉행됐으며, 꿩과 까투리를 방생했다.

주한 대사 부인들 "직접 만든 삼색나물, 맛도 모양도 예술"

문화사업단, 'ASAS 세시풍속 음식체험'
2월 12일 22명 참여…나물·오곡밥 시식
하경 스님, 정월대보름·절식문화 소개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12일 서울 인사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주한외교대사배우자회(ASAS)와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음식체험'을 진행했다.

고사리를 손질하고 취나물을 조물조물 무치던 주한외교대사 부인들의 얼굴에 신기함이 가득했다. 이들은 삼색나물을 직접 만들고, 부럼을 깨며 한국 정월대보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꼈다. 낯설지만 색다른 사찰음식 체험에 연신 웃음이 터져 나왔고, 곳곳에서 감탄이 이어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은 2월 12일 서울 인사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주한외교대사배우자회(ASAS)와 함께하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음식체험'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 호주, 볼리비아, 쿠바, 헝가리, 러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13개국 주한대사 부인들과 그 가족들, 체험관 이용자 등 22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지도법사 하경 스님이 정월대보름 풍속과 사찰음식의 의미, 절식 등을 설명하며 시작됐다. 특히 고사리를 물에 불려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과 사찰음식이 오신채(달래·마늘·부추·파·흥거)를 금하는 이유 등을 쉽게 풀어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실습이 진행됐다. 하경 스님의 지도에 따라 참가자들은 고사리를 씻어 삶은 후, 물기를 제거하고 5~6cm 크기로 잘랐다. 먹기 좋게 손질된 고사리는 들기름으로 볶고 간장으로 간을 했다. 숙주는 깨끗이 씻어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소금과 참기름으로 무쳤다. 취나물도 고사리와 비슷하게 준비해 정갈한 삼색나물을 완성했다.

하경 스님은 "각국 나라 대사 부인들께서 사찰음식 체험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나하나 질문하며 배우려는 열의가 돋보였다"며 "그들에게 나물은 낯선 식재료일 텐데, 막상 직접 실습을 하고나니 쉽고 집에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만든 삼색나물을 오곡밥과 함께 맛보며 사찰음식의 조화로운 맛을 경험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호두와 땅콩으로 부럼 깨기를 체험하며 한국 전통 명절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볼리비아 주한대사 부인의 딸인 마리아 사파타 알리아가(Maria Zapata Aliaga, 볼리비아) 씨는 "스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며 "음식에 담긴 의미까지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사코 미즈시마(Asako Mizushima, 일본) 씨는 "일본에서도 보름에 '단고'와 같은 전통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어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며 "사찰음식은 한국적 맛이면서도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 평소 사찰에 자주 갈 수 없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어 특별했다"고 밝혔다.

사찰음식은 프랑스인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고 싶어 강의해 함께한 아멜리 앙셀린(Amelie Ancelin, 프랑스) 씨는 "채소만으로도 단맛, 쓴맛 등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깊이 있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고 극찬하며 "누구든 살면서 꼭 한 번씩은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음식"이라고 강조했다. 김내영 기자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16년 발자취를 담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 오지에서 끌다〉
2월 10일 후원자들과 북콘서트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 개척史
마을 자생, 인재 선순환 이끌어

캄보디아 북쪽의 외딴 '뽀디봉 마을'에서 16년간 희망과 자비의 기쁨을 이끌어온 비영리민간단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의 발자취가 담긴 책이 발간됐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대표 오시환) 일동은 2월 10일, 조계사 교육국 옆 베이커리 조에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오지에서 끌다·사진〉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임원진을 비롯한 후원자들이 한데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톺아봤다.

박세동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고 넘기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도 많았지만, 이제는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자비 수레를 이끌었던 우리의 구호 '땡기자' '밀자'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정진하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되자"고 당부했다.

네팔 안나푸르나 산골 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다정 김규현 선생도 축하를 전했다. 김 선생은 "나누는 마음인 '자비'는 남을 가엾게 여기는 측은지심과도 연결된다"면서 "따듯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을 실어 나르는 수레꾼이 16년간 걸어온 역사와 성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책을 쓴 오시환 대표는 〈자비를 나르는 수레 오지에서 끌다〉 도서 소개와 더불어 후원자들의 뒷받침으로 일궈낸 성과를 하나하나 발표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2008년 뽀디봉 마을의 진입로를 닦는 일부터 시작했다. 이어 뽀디봉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을주민의 자생을 위한 공예학교 설립을 이뤄냈다. 동시에 코코넛, 바나나, 망고 등 과일이 자라는 나무를 심어 황무지였던 마을을 녹음이 우거진 자연 마을로 탈바꿈시켰다.



이들은 마을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교복, 교과서를 나누고 체육을 비롯한 예체능 교과를 확충했다. 또한 장학생을 선발, 도심 유학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마을로 돌아와 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하며 인재 양성의 선순환까지 만들어냈다.

오 대표는 "여러분의 자비나눔이 있었기에 수레꾼의 16년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자비의 수레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북 콘서트에는 수레꾼 장학금을 받아 전북대 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멘 완니 씨도 참석했다. 멘 완니 씨는 "수레꾼 후원자 분들이 있었기에 프놈펜대 한국어과 졸업 후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의 자비에 늘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책 발간을 축하하는 김슬옹 한국외대 교수(세종국어문화원장)의 축시 낭송, 박창준 판소리 명장의 축가도 진행됐다.

현재 도서는 온라인 서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가령 기자

동국대, 2025년 봄 학위수여식

2월 13일 학·석·박사 2877명
성적우수자·공로상 시상 함께



동국대가 학·석·박사 2877명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학생들의 힘찬 앞날을 응원했다.〈사진〉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2월 13일 교내 남산홀에서 '2025년 봄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학위수여 대상자는 학사 1934명, 석사 787명, 박사 156명 등 총 2877명이다. 이어 성적우수자 14명 및 공로상 19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전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제정 스님, 윤재웅 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문선배 총동창회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천 번의 마음으로 망설이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행동할 것을 강조한 돈관 스님은 "여러분은 동국대를 세상에 알리는 대표"라며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도 삶을 개척하는 사람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며 "지식을 쌓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으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민재 기자

수서경찰서 불심원, 정기법회…목탁 습의

비구니회, 매월 1·3주 법회
반야심경 맞춰 목탁 실습도



지난해 전국비구니회의 노력으로 5년 만에 문을 연 수서경찰서 법당 '불심원'이 정기법회를 열고 전법 의지를 다졌다.〈사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스님)는 2월 7일 불심원에서 2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해 스님을 비롯한 6명의 경찰 불자가 참석했다. 지난해 9월 개원한 불심원은 매월 1, 3주 금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정기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해 스님, 문화포교부부장 대원 스님, 복지부 부장 보은 스님, 국제·사회부 부장 정호 스님이 한주씩 돌아가며 법회를 맡고 있다.

이날 금해 스님은 경찰 불자들에게 앙굴리말라의 일화를 들려주며 참회의 중요성을 일러줬다. 앙굴리말라는 99명을 죽이고 100번째에 부처님을 만나 교화한 인물이다.

목탁 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목탁 사용방법을 익혔고, 반야심경에 맞춰 목탁을 쳐보며 연습했다. 참석자들은 "직접 목탁 치는 방법을 배워보니 목탁의 의미와 스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청, 활안 스님 쾌유기원 법회

2월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작년 췌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中

대한불교청년회 지도법사인 활안 스님(대구 원효암 주지)의 쾌유를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활안 스님은 지난해 췌장암 판정 후 항암치료를 이어가며 병마와 고군분투하고 있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길수, 이하 대불청)가 2월 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한불교청년회 지도법사 활안 스님 쾌유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을 법사로 조계사 청년회(회장 이충훈)와 공동주관 했다.

조계사 청년회 16대 회장직을 역임한 활안 스님은 청년 전법의 중요성에 일찍이 눈을 떴다. 이에 스님은 출가 후 조계사 청년회 인연을 이어 대불청 지도법사를 맡게 됐다. 스님은 청년 포교에 '헌신'했다. 만해백일장, 전국청년대회 등 대불청 행사라면 빠짐없이 동참해, 대불청을 적극 지원해왔다. 스님은 입버릇처럼 "청년 불자가 바로 서야 한국불교도 바로 선다"며 청년 전법을 강조했다.

이날 대중들은 삼귀의·반야심경, 21배 정진,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활안 스님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341874 ((사)대한불교청년회)

김민재 기자

불교활동가 "자연권 보장 촉구하라" 선언

2월 8일 전법회관 대화마당서
인간, 자연 상생 방안 등 제안

불교계의 자연권 논의 확장을 위해 모인 '자연의 권리를 생각하는 불자 모임(이하 자생불)'이 자연과 인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자생불은 2월 8일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교육장 선운당에서 개최한 '불교! 자연과 자연권을 말하다'는 주제 대화마당에서 〈자연과 자연의 권리를 위한 불자 선언〉을 공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듯, 자연 역시 스스로의 주인으로 '인격성'을 갖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의 법적, 도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간중심주의적인 오만함에 바탕을 두고 지구공동체를 위협하는 구조와 체제, 법령 등의 변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 스스로 주체임을 받아들이는 과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생불은 "인간은 자연에 의존해 사는 자연의 일부인만큼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 자연을 대변할 기구를 둬야 한다"며 "지구의 생태 질서를 교란하고 지속가능성을 무너뜨리는 경제활동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가령 기자

올해 휴가엔 '사찰 연계 여행' 어때요?

2025 · 2026년 한국관광 100선 속 사찰은?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올해 여행은 수려한 풍광과 깊은 역사를 가진 '사찰'로 떠나는 건 어떨까.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에 전국 사찰이 다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 서영충)는 1월 20일 대한민국 대표 100대 관광명소를 선정한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7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 홍보하는 국가사업이다. '한국관광 100선'은 SNS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세 차례에 걸친 관광 분야 전문가 서면·현장 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된 사찰은 양산 통도사, 하동 쌍계사, 부산 해동용궁사, 속리산 법주사, 불국사, 석굴암 등 총 6곳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통사찰부터 최근 SNS '사진 핫스팟 사찰'까지 다양하다.

이와 함께 사찰과 연계해 관광할 수 있는 국립공원 6곳도 목록에 올랐다. △대구 팔공산(동화사, 파계사, 선본사, 은해사, 북지장사) △강원 설악산국립공원(신흥사, 백담사, 봉정암, 오세암) △전북 마이산도립공원(탑사, 금당사, 은수사) △내장산국립공원(내장사, 백양사)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증심사, 원효사, 문빈정사, 약사사, 관음암) △한라산국립공원(관음사, 천왕사, 석굴암) 등이 있다.

문체부 · 한국관광공사 1월 20일
'2025~6 한국관광 100선' 공개
양산 통도사 등 사찰들 목록에
불국사 · 석굴암 7회 연속 선정돼
사찰 품고 있는 '산 · 국립공원'도

최근 SNS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화제의 사찰'들이 올해 처음으로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해동용궁사는 SNS 관련 게시물 약 17만 개로 소위 말하는 '핫'한 사찰로 떠올랐다. 바다와 어우러지는 용궁사의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이다. 하동 쌍계사 역시 5만여 게시물을 보이며 화제의 사찰로 뽑혔다. 관련 게시물 15만 개의 양산 통도사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불보사찰(佛寶寺刹)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관광지 중 하나다. 1200년 된 차나무밭을 가진 쌍계사는 '쌍계명차'라는 차 브랜드를 만들고 매년 4~5월 '차문화축전'을 열만큼 차(茶)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국보 진감 선사 대공탑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유서 깊은 사찰이자 봄이 되면 아름다운 벗꽃이 일품인 곳으로 이름나 있다.

한국관광 100선 초기부터 7회 연속 선정된 불국사와 석굴암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올해 3회 연속 선정된 속리산 법주사에는 부처님 일대기를 조성해 놓은 팔상전과 33m에 이르는 청동 미륵불이 조성돼 있어 국민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대원산업
BULJE DAEWON CO.LTD

구 입 문 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부산 대학생 “진정한 불자되겠습니다”

범어사, 대학생 · 청년회 수계법회
대학생 · 청년 65명 불자로 거듭나
정오 스님 “선행 실천 노력하라”
조석주 대불련 부산지부장 취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는 2월 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및 청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기 2569년 대학생 · 청년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부산지부장 이 · 취임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2월 8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지역 대학생 및 청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기 2569년 대학생·청년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부산지부는 지부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법회에는 대불련 부산지부 소속 대학생과 범어사 청년회 회원 등 65명이 참석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며 불자로서 계율을 지킬 것을 서원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지도법사 안도 스님,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 주현우 전 대불련 중앙회장, 전정순 대불련동문회 부산지부장, 이숙희 대불련 부산지부 후원회장 등이 참석해 젊은 불자들의 수계를 축하했다.

수계법회를 주관한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전계사로 나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곧 공덕이 된다”며 계율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오 스님은 법문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작은 나쁜 일도 결국 더 큰 죄로 돌아올 수 있다”며 “부처님께서는 선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셨고, 착한 행동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공덕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설했다.

이어 “나쁜 일을 삼가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오늘 계를 받는 것은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계법회 후 대불련 부산지부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정 전임 지부장이 이임하고, 조석주 신임 지부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조석주 신임 지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불련 중앙회장을 지내며 전국의 불교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대불련의 가치와 역할을 깊이 깨달았다”며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연대와 실천이 조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부산지부장으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학생 불자들이 보다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전임 부산지부장은 이임사를 통해 “직책을 내려놓지만, 계속해서 함께하며 부산지부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은 “지난 1년간 애써온 김은정 지부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롭게 소임을 맡은 조석주 지부장이 대학생 불자들이 자유롭게 불교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국선원 안국장학회의 장학금 수여식도 진행됐다.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유환철 학생이 제24기 장학생으로 선발돼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대불련 부산지부는 젊은 불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불교 신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주요 사업으로 △문화법회(토크콘서트) △연등축제 장엄등·행렬등 준비 △체육대회 △문화탐방 △템플스테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생명나눔·대불련 부산지부 MOU

2월 12일 홍법사서 협약식
대학생 생명나눔 실천 기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조석주)는 2월 12일 홍법사에서 ‘생명나눔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사진〉

협약식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 홍보이사 법경 스님을 비롯해 박동범 사무국장, 조석주 대불련 부산지부장, 김은정 전 지부장, 권혜진 대동대 불교동아리 지회장, 황지영 대동대 불교동아리 부지부장, 김도영 동명대 지부장 등 관계자가 함께했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앞으로 △‘공감 나누기 프로젝트’ 사업 지원 및 원활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부산생명나눔 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독려 등에 협력한다. 아울러 생명나눔 행사에 참가하는 대불련 회원들은 자원봉사활동인증시스템(VMS)에 등록해 공식적인 봉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본부장 심산 스님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단체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젊은 에너지가 더해진다면 생명나눔 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신도회 새 회장에 윤건우 부회장

2월 7일 정기총회서 선출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가 2월 7일 울산불교신도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윤건우 부회장을 제28대 신도회장〈사진〉으로 선출했다.

윤 신도회장은 울산광역시 초대의원 및 제2대 동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며,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신도회장을 역임했다.

윤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눔과 화합을 이루는 신도회를 만들어가겠다”며 “불자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울산불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선광사, 불교 종사자 자녀 장학금 전달

2월 6일, 11명에 총 330만 원



자비나눔 실천도량 부산 사상구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인재 불사의 원력을 실천했다.

선광사는 2월 6일 경내 대웅전에서 ‘을사년 정초 기도 회향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선광사는 부산지역 불교계 종사자 자녀 11명에게 장학증서와 각 30만 원씩, 총 330만 원을 전달했다.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은 “다이아몬드도 갈고 닦지 않으면 한낱 돌덩이에 불과하다”며 “원석을 정성껏 다듬어야 빛나는 가치를 가지듯, 우리 청소년들도 열심히 공부하며 자신의 성과와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 꿈과 희망을 품고 노력해 좋은 인연의 결과를 맺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선광사는 정초산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홍법사, ‘아메리칸 선명상’ 워크숍

2월 20일부터 한 달간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2월 20일과 3월 20일에 미국 위앙종 선명상 지도법사 현안 스님을 초청해 ‘아메리칸 선명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초심자부터 경전 독송과 다라니 기도에 익숙한 불자, 명상에 관심 있는 일반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현안 스님은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명상의 통찰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도 지도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qHrvWZysc4oXDm576) 및 전화(010-3012-3730)로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관음선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2월 7일 원통보전서
총 3700만원 쾌척해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는 2월 7일 부산 관음사 경내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 스님)가 2월 7일 부산 관음사 경내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37명의 학생(스님 13명, 고등학생 6명, 대학생 11명, 대학원생 7명)에게 총 37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관음선행장학회는 1991년 정금강행 불자를 비롯해 뜻있는 불자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장학회로, 설립 초기 자산 1억 원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됐고, 이후 재단법인으로 등록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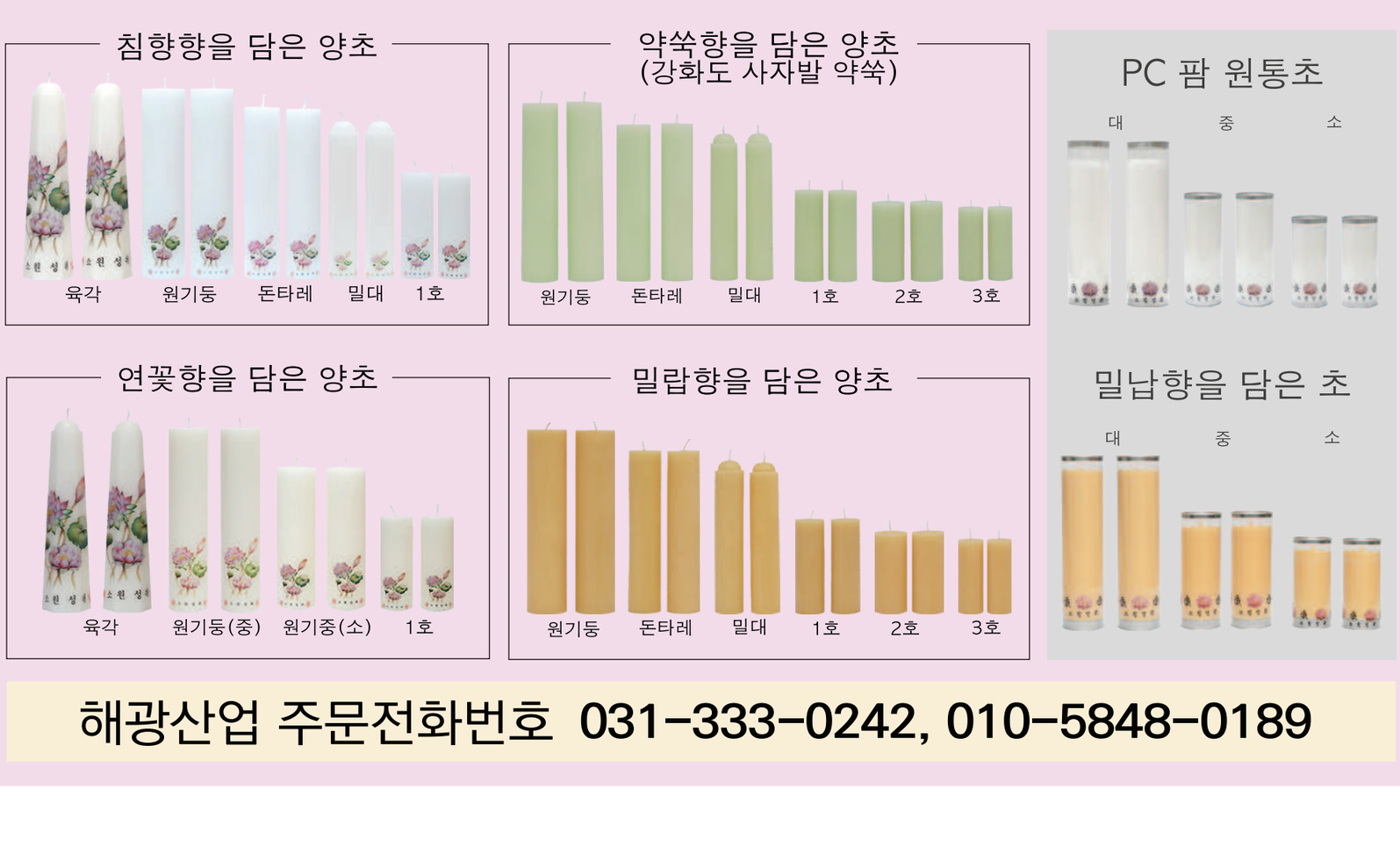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은 2019년 장학회 자산을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스피스 교육, 교양 강좌, 불교 교리 강좌 등을 개설하고, 직접 강의한 강의료 전액을 장학회 후원금으로 기부해왔다. 장학회는 매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출연해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만 원씩 지원해왔다. 2024년까지 총 763명의 학생에게 7억 6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지현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장학생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며 “여러분들은 가문을 빛내고, 세상을 더욱 향기롭고 맑게 만들어갈 인재들”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감로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관음선행장학회를 후원해 주신 박문원 이사님과 관음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는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헌신할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할 후원자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액운 가고 福 오라”, 전국서 대보름 행사

달집태우기 등 전통놀이 ‘풍성’
음악회, 문화공연 흥겨움 더해
복지관서도 대보름 행사 이어져
가족들과 함께 전통음식 체험도

김가령 · 김민재 기자,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진은 시계방향으로 내소사, 울산불교사암연합회, 정각사,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정월대보름 행사 모습.

지난해 묵은 액운은 떨치고 올 한해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행사는 달집태우기, 부럼 깨기, 문화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는 2월 12일 경내 범종루와 일주문 일원에서 10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정월대보름 봉선사 달집태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경내 범종루에서 시작된 행사는 저녁예불, 달집이운, 신중작법, 문화공연, 달집태우기 순서로 이어졌다. 호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고 살지만, 항상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오늘 달집태우기 행사로 마음속 밝은 보름달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교구장 호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달집에 불을 붙이자, 불길은 높이 치솟아 밤하늘을 환하게 비췄다. 동참 대중은 두 손 모으고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기원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이현선(49) 씨는 “2025년에 아들이 수능을 보는데, 공부한만큼 결과가 잘 나오길 기도했다”고 밝혔다.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는 2월 15~16일 경내 일원에서 ‘달집태우기 특별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템플스테이 동참자들은 1박 2일간 명상, 108배 정진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한편, 달집태우기로 2024년 액운을 날리고 2025년에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길 발원했다.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도 2월 12일 동참 대중에게 오곡밥과 나물을 나눠주며 새해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정월대보름은 새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중요한 명절”이라며 “궂은 날씨에도 보름달이 떠오른 것처럼 모든 분들이 소원성취하는 한해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에서는 정월대보름 행사, 당산제로 새해 풍요와 발전을 염원했다.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 스님)는 2월 12일 달집태우기 행사와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어 정월대보름 밤을 만끽했다. 농악,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로운 음악을 즐긴 대중들은 각자의 소망이 적힌 달집을 태우며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에서는 불교와 민속신앙이 어우러진 당산제가 개최됐다. 내소사 대중스님들은 경내 들당산나무에서 불교 전통의식으로 내소사와 사부대중, 마을의 평화를 기원했다. 당산제를 마친 뒤 마을주민들은 다함께 모여 정월대보름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한해 안녕을 빌어주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해남사 주지)는 정월대보름 맞이 ‘합동방생대법회’를 봉행하고 울산시민의 번영을 기원했다. 행사에는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도 등 1500여 명이 함께해 태화강에 물고기를 방생했다. 사암연합회는 이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200포를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계 복지관도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과 온정을 나눴다. 도선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혜명**(이사장 태원 스님, 도선사 주지)은 2월 10일 혜명보육원 앞마당에서 ‘정월대보름 한마당 마을축제’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은 난타공연, 윷놀이 등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오늘 행사는 이웃과 정을 나누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협력과 조화의 힘야말로 미래를 밝힐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화성 정조효노인복지관(관장 탄하 스님)은 2월 11일 관내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은 고무신 던지기, 땅콩 부럼 주머니 만들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기며 옛 추억을 불러 일으켰다. 한 어르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놀며 정월대보름을 맞이하니 활기찬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2월 12일 진행된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 정월대보름 행사는 전통 놀이, 바자회 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장애·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한 곳도 있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 광제사 주지)는 2월 9일 ‘을사년 정월대보름 복쌈잔치’를 열었다. 100여 명의 가족은 오곡밥과 제철 나물이 담긴 전통음식 ‘복쌈’을 만들고 연날리기, 활쏘기 등 전통 놀이를 통해 뜻깊은 명절을 보냈다.

조계총림 송광사, 동안거 해제법회 봉행

현묵 스님 “지혜 등불 밝히길”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2월 12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을사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해제법회에는 동안거를 성만한 수좌스님들과 송광사 유나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과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여해 3개월 간의 수행을 회향했다.

이날 현묵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해제를 마치고 만행에 나서는 스님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일심으로 잘 챙겨서 다시 또 결제일이 되면 처소에서 열심히 정진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덕사 “해제 걸음마다 기도로다”

2월 11일 경내 대웅전 · 앞마당서



겨울 석 달 동안 수행정진 해온 눈푸른 납자들이 동안거 해제를 맞아 계를 정돈하고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조계종 제7교구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2월 11일 경내 대웅전과 앞마당에서 동안거 2차 포살 및 해제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수덕사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정범 스님, 개심사 혜산 스님, 정진 납자 161명 등이 자리했다.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는 “해제만행 걸음걸음마다 천일기도요, 만일기도로다”고 법어를 내렸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장성 백양사, 을사년 동안거 해제법회

“수행도량으로 거듭” 다짐



조계종 제18교구본사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2월 12일 경내 대웅전에서 세 달간의 겨울 수행을 회향하는 ‘을사년 동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은 “이제 자기가 의지하는 선지식을 찾아가서 자기 점검을 하고, 선배나 도반에게 물어서 법의 탁마(琢磨)를 해야 공부의 진척이 된다”는 해제 법문을 전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올해는 많이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함께 수행정진에 임해줘 감사하다”며 “무탈하게 동안거 해제를 맞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좌스님들에 감사 인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범일당 보성 대종사 6주기 추모법회

2월 11일 경내 대웅보전서
추모다례, 부도탑 참배 등



청빈한 삶을 통해 목우행자를 지도했던 전 송광사 방장 범일당 보성 대종사(1928~2019)의 추모법회가 봉행됐다.〈사진〉

조계총림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2월 11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보성 대종사 6주기 추모다례재와 부도탑 참배를 진행했다.

추모법회에는 송광사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해 문도스님들과 본·말사 주지, 신도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해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문도대표 영선 스님은 “스님은 ‘늘 수행자는 항상 청정해야 한다’고 말씀하며 검소하게 살았다”면서 대종사의 청빈한 삶을 회상하고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로서 신심을 견고히 하고 더욱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동안거가 해제 전날 대종사의 추모법회에 참석해준 여러분에 감사하다”며 “스님이 특별한 복전을 짓고 떠나 많은 분이 모였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성당 명선 대종사 2주기 추모제 봉행

2월 9일, 지리산 대화엄사서
“수행정진 가풍 이어갈 것”



호남지역 불교 포교에 진력했던 전 조계종 원로의원 금성당 명선 대종사의 2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2월 9일 경내 각황전과 부도전에서 명선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 추모제에는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 주지 덕문 스님을 비롯해 문도 대표 진만 스님과 문도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 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작년에 도광·도천 대종사의 추모재에 명선 대종사의 행장기를 올려드렸는데, 그 행장기에는 대종사의 큰 원력과 증명, 노력이 담겨 있다”며 “사부대중은 인욕과 자비, 수행정진의 가풍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도스님을 대표한 진만 스님은 인사말에서 “수처작주의 삶을 강조하셨던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해 본다”고 회고하며 “사부대중의 청안과 건강을 축원한다”고 참석한 대중들에 감사 인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산 정법사 정초기도 회향법회

네팔 석가족 사원서 사리 이운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2월 6일 경내 만불보전에서 ‘을사년 정초기도 회향 및 진신사리 이운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1월 31일~2월 6일까지 7일간 이어진 정초기도에는 1000여 불자가 동참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비로선원 화엄삼존불 내 복장물로 봉안될 네팔 석가족 사원에서 이운한 부처님 사리가 공개됐다.

이 사리는 주지 광우 스님이 네팔의 석가족 겐가지 삭카야 스님에게 기증받은 사리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미륵암, 정초 용왕대재·방생법회



경남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 스님)은 2월 9일 을사년 정초를 맞아 남해 바다 일원에서 용왕대재와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100여 명의 불자가 동참해 신심을 나누며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에서는 바다와 강을 관장하는 용왕에게 공양을 올리고 가피를 기원하는 용왕대재 의식이 거행됐다. 이어 방생법회에서 참석자들은 물고기를 바다로 돌려보내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행사를 통해 미륵암은 국가와 민족의 안녕 및 재난과 질병으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승가대 졸업식



조계총림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가 2월 10일 경내 정혜사에서 제23회 율학승가대학원과 제36회 승가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율학승가대학원 졸업생 2명(일벽·혜견 스님)과 승가대학 졸업생 5명(평수·운해·해월·혜경·도하 스님)이 불교의 수행과 포교의 길로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졸업식에는 송광사 수좌 현묵 스님, 주지 무자 스님, 승가대학장 연각 스님, 율원장 대경 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각원사 “희망찬 새해” 기원



천안 각원사 사부대중이 2025년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한 해의 안녕을 기원했다.〈사진〉

천안 각원사(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는 2월 8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서로에게 절을 올리며 올해 건강과 무탈을 발원했다.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는 “오늘 서로 절하면서 느꼈던 진실된 마음을 잘 유지해서 지남(指南)으로 삼길 바란다”며 “2025년에도 복을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희망찬 새해를 만들자”고 덕담을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북불교대 ‘물리학과 깨달음’ 주제 특강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2월 9일 관내 4층 대법당에서 황근창 원광대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물리학과 깨달음’을 주제로 2025년 2차 동계 특강을 개최했다.〈사진〉

황근창 교수는 “생각의 출몰을 그대로 지켜봐라. 올라오는 생각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 수련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체 모든 것은 연기(조건)의 소산이므로 영원한 실체가 없어서 집착해야 할 나도 대상도 없어서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는다. 이게 열반이다”고 강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 성주사 조사전 낙성법회 봉행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가 2월 12일 경내 조사전 앞에서 조사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낙성법회를 가진 조사전은 성주사의 개산조(開山祖)인 무염 국사 진영을 비롯해 의정 대선사, 찬훈 대선사, 대총 대선사 등 역대 조사스님의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신도와 방문객들에게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은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 원력을 펼쳐오신 선사들의 뜻을 되새기며, 성주사가 창원시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中 산시성서 발견된 천년의 석굴사원

산시성 타이위안 '불혜사동굴'
조각기법 분석, 수 · 당 조성 추정
보존 위한 최신 기술 활용 추진
"기술 결합한 보존 노력 필요"

김민재 객원기자

중국 북부 산시성(山西省)에서 10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새로운 석굴사원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2월 6일 중국 언론 '환구시보'는 최근 산시성 타이위안 지역에서 발견된 '불혜사동굴(佛慧寺洞窟)'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다.

불혜사동굴은 길이 8.2m, 높이 4.26m, 깊이 1.63m의 대형석굴로 불상 상호와 조각 기법을 분석한 결과, 석굴 조성 연대가 1000여 년 전 중국 수나라(581~618)와 당나라(618~907)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된다.

페이징롱 중국 문화유산보존국 고고학자는 "석굴사원 중앙의 대불 세구와 양측 벽면 부조의 상호, 조각 기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에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상호와 옷 주름의 표현 방식이 해당 시기 불상과 유사한 점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10대 제자상, 보살상, 비천상 등이 정교하게 잘 보존돼 있다"고 밝혔다.



불혜사동굴의 마애불. 사진출처=CCTV뉴스

산시성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석굴사원과 절벽 부조가 있는 지역으로 불교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중 하나다. 왕웨이 고고학자는 "수·당나라 시기 불교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석조 예술도 함께 발전했는데, 불혜사동굴은 그 시대의 불교문화와 예술적 성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 유산"이라며 "이 시기 불교 예술은 단순한 신앙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혜사동굴은 동굴의 동쪽이 서쪽보다 높아 동쪽 바닥에 1m 이상의 균열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석굴사원의 보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산재해 있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석학적 요인을 포함해 지형, 동굴 밀도, 구조 표면의 특성이 동굴의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산성비, 미세먼지, 관광, 인근의 건설 진동 등 환경적 요인이 석굴사원 훼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왕웨이 고고학자는 "같은 지역에서 발견됐던 '천룡산석굴(天龍山石屈)'은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로 불법 유출된 불상을 디지털 형태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3D 스캐닝 및 디지털 복원 기술을 활용해 불혜사동굴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석굴사원 보존을 위한 최신 기술 활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혜사동굴 같은 고대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디지털 복원 기술과 전통 고고학 기술을 결합한 연구와 보존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 윤리, 간호 교육 중심으로 부상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서
인간 중심 돌봄 모델 구축

기술 발전이 의료 산업을 혁신하는 시대, '간호'의 미래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게 됐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 교육에 생명존중의 불교 윤리를 도입한 대학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9일 홍콩의 언론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메트로폴리탄대의 불교 윤리와 간호 실무 융합 교육 소식을 보도했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 간호보건과학부는 간호 윤리 및 법적 문제, 전문 간호 실무 과정에 불교 윤리를 통합하는 혁신을 보여줬다. 융합 교육과정에서는 간호대 학생과 환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 중심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간호보건과학부 학생들. 사진출처=홍콩 메트로폴리탄대 간호보건과학부

오늘날 간호사들은 더욱 복잡해지는 환자와 상호작용 속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환자의 가치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역량을 키울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불교 윤리는 현대 의료윤리 4대 원칙(무해성, 선행, 자율성 존중, 정의)과 유사점을 갖고 의료 종사자에게 도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비(compassion), 마음챙김(mindfulness), 연기(interconnectedness)를 강조하는 불교 윤리는 간호에 필요한 기술을 배양하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불교 윤리가 가진 핵심 원칙인 불살생(ahimsa), 자애(metta), 동심지랑(mudita) 등의 개념은 간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한다.

간호보건과학부 관계자는 "다민족 국가에서 간호사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이해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불교적 관점으로 다양한 문화 및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간호사들은 환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불교 윤리와 간호 실무의 융합은 '마음챙김 실천'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자세를 갖추면 환자 치료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간호사 본인의 정신적 안녕의 유지도 가능하다"며 "명상이나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과 같은 기법을 간호 교육에 통합하면 미래 간호사들은 정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임상 환경에서 자비로운 간호를 제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 간호보건과학부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간호 기술에 숙련됨과 더불어 윤리적이고 자비로운 간호사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성평등' 이끈 불자 트랜스젠더 여성

나찰레 부니야피솜판 씨
불교 · 성소수자 연대 이끌어
"차이점 포용, 변화의 희망"


나찰레 부니야피솜판 씨.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2024년 6월, 태국 상원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9월 해당 법안은 마하 와지랄롱콘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공식 법률로 제정돼 202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결혼 평등을 실현한 태국의 변화는 사회운동가들의 오랜 노력으로 일군 성과다. 특히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회원인 트랜스젠더 여성 나찰레 부니야피솜판(예명, Hua) 불교 활동가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과 인터뷰에서 "불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회 변화의 희망을 갖는 데는 이러한 불교 교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Q. 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A. 저는 태국 불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절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13살 때는 일주일 동안 출가해 생활한 경험이 있죠. 학교에서도 불교 수업을 듣는 등 제 인생에서 불교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Q. 성 정체성은 언제 깨달았나요?

A. 어릴 때부터 보통의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당시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없어서 '카토이'라고 불리곤 했죠. 대학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알게 된 후 제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더욱 넓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불교 교리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까요?

A. 불교는 수용을 중시하는 종교이기에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집안이었기에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불교 교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자세를 길러줘서 제가 사회 변화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Q. INEB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죠?

A. INEB는 자비로운 사회, 환경 보존,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의 승가' 프로젝트에서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죠.

Q. '종교 간 프라이드: 성평등과 사회 정의' 행사를 주도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A. 해당 행사는 방콕 프라이드 페스티벌, 여러 성소수자 활동 단체와 협력해 연 첫 행사였습니다. 성평등과 사회 정의를 위해 종교 간 협력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됐죠.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협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Q. '결혼평등법'이 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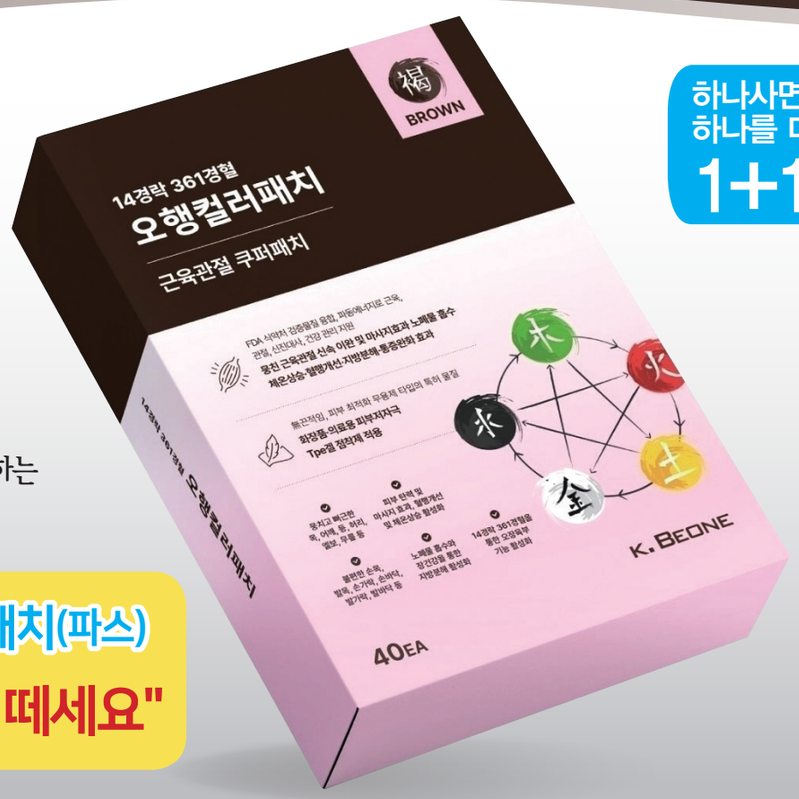
A. '결혼평등법' 제정은 단지 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저는 이 법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태국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박정현 객원기자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진정한 '꽃길'은 마음 속에서 피어난다

허회태 작가 '내가 품은 꽃길'展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군포 Eg갤러리서…28점 전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내가 품은 꽃길1(163x130cm,한지 및 혼합재료,2024).

서예와 회화를 합병한 새로운 예술 장르 이모그래피(Emography)의 창시자 허회태 작가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3개월간 군포 Eg갤러리에서 개관 기념 개인전 '내가 품은 꽃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허 작가는 감성과 형상에 따른 색의 질감을 입체적, 회화적으로 표현해 생명체의 존재가치를 '꽃길'로 담아낸 작품 28점을 통해 그의 창작 철학과 예술적 가치를 대중에게 선보인다. 수많은 꽃이 생명을 피워내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모습에서 신비한 생명의 파장이 전해지는 울림의 세계를 느낄 수 있다.

허 작가에 따르면 그의 작품은 어떤 고정된 조형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평면과 입체가 조화를 이루는 컴바이닝아트(조합예술)로서, 서예와 미술이 융합된(이모그래피) 독창적인 형식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그의 작품은 무한한 서정성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축하며 인간, 문명, 자연의 조화를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를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한다.

그의 작품세계는 크게 네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허 작가는 사유와 염원을 담은 좋은 글을 한지에 붓글씨로 쓰고, 이를 바탕으로 입체 조각을 만들어 평면과 입체가 결합된 작품을 완성한다. 둘째, 붓글씨로 쓴 글 하나하나를 세포와 같은 생명체로 여겨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모스컬퓨처, 즉 감성과 조각이 결합된 3D 작품을 선보인다. 셋째, 허 작가는 일관되게 감성적이고 상징적인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작품을 형상화한다. 넷째, 감상자들을 꽃길로 인도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진정한 꽃길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속에서 피어난다는 깊은 의미를 전한다.

개인전 '내가 품은 꽃길'에서는 허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꽃길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작 '내가 품은 꽃길1(163x130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4)'은 작업 시간만 1여 년이 소요된 작품이다. 붓글씨로 쓴 3만여 개의 조각들로 구성됐다. 꽃길에 자연과 인간사의 온갖 풍상과 스토리가 소리 없이 무한히 스며있는 것이 특징이다. 허 작가는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터득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삼투압 작용으로 조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꽃길을 밝히는 해(65×91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4)', 각기 다른 사회, 계층을 품고 있는 '무지개빛 꽃길(163×130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4)', 자유 곡선으로 시각적 쾌감을 수반하는 '내가 품은 꽃길4(80×130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3)', 기계문명과 자연의 대위법적인 고찰을 담은 '내가 품은 꽃길5(100×90cm, 한지 및 혼합재료, 2024)' 등이 공개된다.

허 작가는 "좋은 작품이란 미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대중의 내면까지 끊임없이 울림을 주는 작품이어야 하고, 미의 세계를 만들어 공감하는 사회적 기능과 매너를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의 시작은 각기 다른 기억의 수많은 생명체가 서로에 기대어 피어나는 것에서 비롯됐다. 이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유와 명상이 담겨 있는 우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찾는 길이고, 내가 좋아하고 행복과 희열을 갖는 것이 진정한 꽃길이다"고 말했다.

한편 허회태 작가는 5세부터 서예와 한학을 시작해 1995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했다. 상명대 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서예, 전각, 한국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익혔다. 융합예술인 이모그래피를 창시하고 현대조형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 5개 갤러리 초대 순회전을 가졌고, 국내에서는 20여 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CT 이용한 문화유산 해석과 이해' 발간

국립중앙박물관, 13점 결과 수록
진열 스님 작품 추정 목제불입상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해석과 이해 표지.

컴퓨터 단층촬영(CT)으로 목조불상의 내부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최근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이용한 문화유산의 해석과 이해'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13점의 CT 촬영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불교유산의 제작 기법과 보존 상태를 비파괴 방식으로 정밀 분석한 점이 주목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7년부터 국내 최대 전압의 CT 장비를 도입해 현재까지 770여 건의 문화유산을 조사해왔다. 보고서에는 18세기 진열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목제불입상을 비롯해 금속, 도자기, 목재 등 대표 재질의 내부 구조, 제작 기술·특성 등이 담겼다.

목제불입상(木製佛立像)은 CT 촬영을 통해 통나무의 내부를 파내어 제작된 점이 확인됐다. 얼굴과 귀가 별도로 결합된 방식이며, 가슴 부분에서는 거멀쇠를 사용해 나무의 갈라짐을 방지한 흔적이 발견됐다. 또 오른쪽 어깨와 다리 상단부에서는 보강을 위해 사각형 목재가 삽입된 부분도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평양 오야리에서 출토된 금장식철제환두소도(金裝飾鐵製環頭小刀)와 고려시대 청자어룡모양주전자(靑磁魚龍形注子) 등의 부식 상태와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CT 분석 결과가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0월 박물관보존과학센터 개관을 앞두고 원통형 CT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CT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한 원통형 CT는 목재 문화유산의 나이테 분석을 통한 연대기 작성 등이 가능해 지속적인 데이터 구축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원통형 CT의 도입은 단순히 외형을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제작 기법과 재료, 손상 상태, 내부 구조 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내영 기자

한국선학회 제13대 회장에 향산 스님

학회 이사회서 만장일치 선출
"선불교 학문적 외연 넓히겠다"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향산 스님〈사진〉이 한국선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선학회는 지난해 12월 1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향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한국선학회 신임 회장 향산 스님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향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회기 동안 한국선학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전 회장 혜명 스님, 학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저는 안으로는 선학 관련연구의 초석을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선불교의 학문적 외연 확장을 통하여 현시대의 다양한 주제와 접점을 찾는 학회 본연의 목적을 유지, 보존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통과 시대정신의 공존을 모색하며 한국 선학의 기둥이 더욱 굳건해지고 현시대 속에 뻗어나가는 학문의 가지들이 더욱 건강히 생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향산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 중앙승가대를 거쳐 일본 하나조노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24년부터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및 (사)월정사 화엄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초기 유가행 유식학파의 명상수행에 관한 주제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선학회는 6월 13일 '선종의 인간관'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불교의 선사상이 현 시대가 던지는 화두에 어떻게 답할 수 있으며, 시대정신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한국선학회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후원했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 가치 알릴 사찰 모집합니다"

문화사업단, 2월 21일까지 접수
지역 연계 홍보행사 선정 · 지원

청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담긴 사찰음식의 가치를 널리 알려갈 사찰을 모집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불교의 나눔 정신을 실천하고자 '사찰음식 홍보행사' 운영 사찰을 선정·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44개 사찰에서 사찰음식 체험, 전시, 강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올해는 보다 많은 사찰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사찰음식 홍보행사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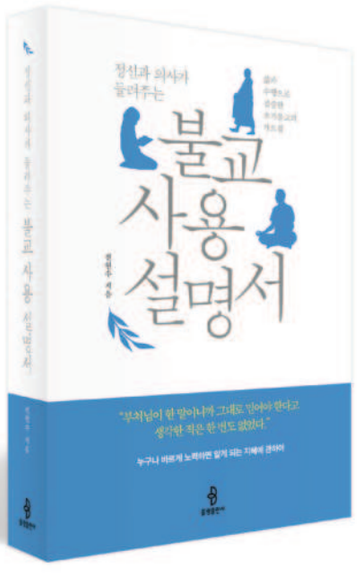
지원사업 대상은 지원금 대비 20% 이상의 자부담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찰이다. 다만 사찰음식과 관련 없는 행사나 법회·기도 등 기본 신행활동과 연계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찰은 조계종 및 사찰음식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2월 21일까지 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검토와 2차 지원심사를 거쳐 3월 중 결과가 최종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사업단 사찰음식팀(02-2031-2054)으로 문의하거나 사찰음식 홈페이지(www.koreatemplefood.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내영 기자

"불교를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내 최초 '불교정신치료'의 장을 연 전현수 박사,
40년간 공부하고 수행하며 검증한 불교를 말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크고 작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괴로움은 점점 줄어든다. 나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 전에는 괴로움이 있었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괴로움은 계속되었다. 이때는 이래서 괴로웠고, 그때는 그래서 괴로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니 그런 괴로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 본문 중에서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불교 사용 설명서
삶과 수행으로 검증한 초기불교의 가르침
전현수 지음 | 640쪽 | 30,000원

'마음을 씻는 경전' 세심경洗心經『주역』
핵심만 알아도 세상 문리가 트인다!

동양철학 최고 고전『주역』의 인문학을 섭렵하는 순간,
세상 이치와 통하는 인생 경영의 키를 쥐게 된다!



세계적 인물들이 극찬한『주역』
『주역』을 가죽끈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읽은 공자
"배우게 된다면 큰 허물은 없을 것"
『주역』을 500번 탐독한 탄허 스님
"불교를 제외한 최고의 철학!"
『주역』과 무의식을 접목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책"

마음을 씻고 세상을 꿰뚫는 경전
주역의 눈
이선경 지음 | 272쪽 | 20,000원

저자 강연회 〈내 인생을 위한 주역 사용법〉
강사: 이선경 (한국주역학회 회장)
일시: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BBS불교방송 3층 다보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2/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불교사회복지(프라즈냐총서60)불교사회복지사상과 실천의 현대적모색	명안	운주사
2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스님	효림	7	한원자속의 우주(과학과 불교)	달라이라마/삼묵 외	하늘북
3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8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4	불멸(1)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9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5	붓다의 향훈을 따라서: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	대연스님 지음	해조음	10	치유하는 유식읽기(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유식30송)	서광스님 강의	공간

책세상

'철학자 원효'로 보는 불교철학사



분황원효 불교사상사

고영섭 저
운주사 / 5만원

철학적 전환과 사상적 성숙과정 고찰
"아마라식 수용, 구역 섭론학 맥락"
동아시아 · 한국불교 지위 · 위상을 구명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원효 스님 진영.

원효는 한국불교사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조명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가 우리 불교사에 남긴 업적과 일화들은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일심'과 '화쟁'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의 사상은 한국 불교를 넘어선 것으로, 그 가치에 대한 조명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책 〈분황원효불교사상사〉는 원효의 사상적 지형을 기반으로 하여, 구심으로서 원효와 원심으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상가 및 한국사상가를 조명한다. 원효를 동아시아 불교사상사의 구심에 두고 동아시아 사상가와 한국 사상가를 원심에 두어 대비함으로써 동아시아불교와 한국불교의 지위와 위상을 구명한다.

책은 전체 4부 14장으로 되어있다. 제1부는 '분황 원효와 불교사상', 제2부는 '분황 원효와 동아시아 불교사상', 제3부는 '분황 원효와 고려 · 조선 불교사상', 제4부는 '분황 원효와 대한 불교사상'이란 주제를 다룬다.

△제1장 '동아시아 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에서는, 아뢰야식으로서 일심, 기신의 적멸·여래장으로서 일심, 화엄의 진심으로서 일심, 선법의 본법으로서 일심 이해를 통해 원효의 철학적 전환 과정과 사상적 성숙 과정을 고찰한다.

△제2장 '한국불교의 전통과 원효 불학의 고유성'에서는, 원효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해명(이해)의 과정을 거쳐 다시 '경문의 회석(會釋)'에 대한 융화 회통의 과정으로 나아갔음을 밝힌다.

△제3장 '분황 원효와 진제 삼장의 섭론학 이해'에서는 원효가 〈금강삼매경론〉에서 본각의 결정성이자 법신불의 입장에서 제시한 아마라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구역 유식인 섭론학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제4장 '분황 원효와 자은 현장의 인명학 이해'에서는, 원효는 〈판비량론〉에서 대승 불설에 대한 승군과 현장의 교증(教證)을 비판하고 자신이 고안한 이증(理證)의 논증식을 제시하였음을 살펴본다.

△제5장 '분황 원효와 문아 원측의 유식학 이해'에서는, 원측과 원효는 불설(佛說)의 핵심인 중도(中道)의 다른 표현인 일승(一乘)과 일심(一心)의 관점 아래 회석(會釋)하고 화회했다고 본다.

△제6장의 '분황 원효와 현수 법장의 기신학 이해'에서는, 원효는 적멸로서 일심과 여래장으로서 일심을 아우른 '본법으로서 일심'을 시설함으로써 완성된 인간상인 붓다상을 제시했다고 본다.

△제7장 '분황 원효와 인각 일연의 화엄학과 선학 이해'에서는, 원효와 일연의 화엄학과 선학 이해를 통해 두 사람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구명했다.

△제8장 '분황 원효와 경허 성우의 구도 정신'에서는, 원효와 경허의 구도 정신은 부처와 중생, 홍법(弘法)과 화생(化生), 청산과 세속, 열반과 생사가 둘이 없는 무이(無二)의 중도(中道) 세계로 표출되었으며 그것은 요익중생과 이류중행으로 드러났다.

△제9장 '분황 원효와 만해 봉완의 깨침과 나눔'에서는, 이들은 '세간적 삶'을 벗어나 '출세간의 삶'에 들어서 깨침과 깨달음을 얻은 이후 다시 '출출세간의 삶', 즉 '입세간의 삶'을 통해 일심법과 유심법, 화회론과 혁신론, 무애행과 심우행을 중심으로 철학적 삶과 종교적 삶의 소통을 모색했으며, 그들의 일심이문(진여·생멸)과 유심이문(일공·만유)의 철학적 구조를 종교적 실천으로 연결시켰다고 보았다.

△제10장의 '춘원 이광수의 분황 원효 인식'에서는, '신라의 발견'의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엮은이와 그의 의견에 동참한 이들의 자기 정체성의 부정과 자기 역사의 타자화로 일관된 논구들은 모두 일제가 만들어낸 담론의 재승인이라고 보았다.

△제11장 '분황 원효의 중도일심과 퇴옹 성철의 중도무심'에서는, 원효의 '중도일심'과 성철의 '중도무심' 개념의 연속과 불연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2장 '분황 원효의 일심과 묘공 대행의 한마음'에서는, 원효의 일심학이 일심지원과 일심, 일(각)미와 일심, 본각과 진여 등의 구도로 이루어지듯이 대행선의 가풍도 한마음 주인공과 한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원상으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제13장 '분황 원효의 염불관과 무주 청화의 염불선'에서는, 원효가 〈아미타경소〉와 〈무량수경종요〉 등에서 제시한 타력에 의한 왕생인(往生因)과 청화의 일상(一相)삼매와 일행(一行)삼매의 실천을 통한 '순선안심(純禪安心)'을 비교하고 있다.

△제14장 '분황 원효 연구 논저 목록'에서는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원효 저술의 편서 및 역서, 원효 관련 단행본, 논문, 박사논문, 석사논문 순으로 정리했다. 이들 논저 목록을 일별해 보면 분황 원효에 대한 연구사 자체가 곧 새로운 불교철학사를 써 가는 과정임을 체감할 수 있다.

〈서장〉 다시 읽기



禪, 이렇고 이렇다

수행경전연구회 편저
학이사 / 1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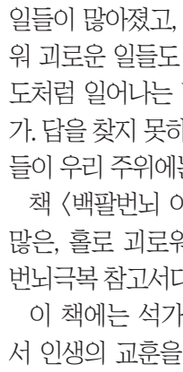
〈서장〉은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 종고 스님이 송나라 사대부인 참선 수행자들과 참선 수행에 대해 주고받은 편지글을 엮은 책이다. 선에 입문하는 초보자에서부터 법거량을 담당하는 방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불교 경전과 자신의 체험, 부처님의 말씀, 선사들의 죽비 소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 말 없는 말로 간화선의 요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스님의 제자들에 의해 편집된 〈서장〉은 그동안 많은 수행자들에게 화두 참선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책 〈禪, 이렇고 이렇다〉는 수행경전연구회가 〈서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책이다. 편지 내용을 소주제별로 재구성해 선가는 물론 일반 수행자들이 간화선의 진수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책을 재구성하는 데는 원본과 여러 저서와 번역서 등을 참고했다.

책은 선공부의 시작[信]·선공의 이해[解]·선공부의 실천[行]·선공부와 깨달음[證]이라는 큰 틀을 기반으로 서장의 내용을 재구성했다. 그다음 각 소주제는 들어가는 말과 서장의 내용을 추출한 서장 본문 내용, 보충 해설인 다시 보기의 3단계로 되어 있다. 각주에는 서장 원본의 편지 제목과 차례를 밝혔다.

수행경전연구회는 위덕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의 모임이다.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 밀교 등의 수행의 이론과 방법을 접하면서 일관성 있는 불교 수행의 이론적 근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수행 위주의 경론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으며, 〈독송하는 염처경〉 〈수행의 길을 밝히는 수행도지경〉을 출간했다. 박재완 기자

괴롭지 않은 사람 없다 부처님 말씀에 답이



백팔번뇌 이야기

마쓰나미 고도 지음
최성호 옮김
바다출판사 / 1만7천8백원

"저는 지금 너무나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괴로움을 털어놓지 못하고 가만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는데, 더는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좋은 일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부처님은 그런 인간의 힘겨움을 '백팔번뇌'로 정리했다.

현대 인류는 쉼 없는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삶의 외향은 풍요로워졌지만, 그로 인해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 그 만큼 정신과 마음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고, 그 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워 괴로운 일들도 많아졌다.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어나는 번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다.

책 〈백팔번뇌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참 많은, 홀로 괴로워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번뇌극복 참고서다.

이 책에는 석가모니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인생의 교훈을 담은 초기 경전 〈사십이장경〉과 〈법구경〉 〈경집〉 그리고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등이 지켜야 할 불교의 예법을 담은 〈육방예경〉 등 70여 권의 불경에서 선별한 108개의 구절이 수록되어 있다. 이 구절들은 인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죽음과 노화, 불안과 좌절 등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불행이라 여기는 이것들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바로 알면 충분히 다스려 평안한 마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와 스스로 삶의 기쁨을 만드는 방법, 타인과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초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드라마 '나의 아저씨'로 보살을 논하다



괜찮아 괜찮아
장범용 지음
자유문고 / 1만4천원

드라마 '나의 아저씨'서 '보살' 찾아
10개 이야기 통해서 깊은 불교 공부
드라마 추구한 인간상, 바로 '보살'
'대승보살' 통해 '나의 아저씨' 해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드라마 '나의 아저씨' 캡쳐.

"마음공부 하러 왔습니다."

"네, 마음공부 하러 왔죠. 그런데 왜 마음을 공부해요? 다들 마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공부해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밖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편의 드라마 곳곳에서 부처님 말씀이 보인다.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책 〈괜찮아 괜찮아〉의 부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속 보살을 만나다'이다. 부제에서 보듯이 책의 핵심 얼개는 2018년 3월에 방영됐던 16부작 드라마 '나의 아저씨'와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보살'이다.

책은 열 개의 이야기에서 저자가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들을 소개한다. 배우들의 대사도 소개한다. 한 편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저자의 공부가 시작된다. 저자의 '논'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경전이고 책은 그것의 논서다. 저자의 '논'은 가볍지 않다. 이어지는 리뷰의 문법도 '불교'다. 가벼운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책은 책장을 넘기면서 점점 묵직해진다. 유식론, 대승보살, 육바라밀, 유마…. 책을 읽고 나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숙제가 남는다. 독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숙제의 중량은 각각 다르겠지만, 최소한 드라마를 찾아보거나 다시 보거나, 그리고 책에는 많은 밑줄이 남게 된다. 그 밑줄이 모두 숙제다. 저자는 '나의 아저씨'를 통해 현실에서의 보살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의 따뜻한 본성을 보여주는 후계동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보살의 삶이라고 말한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드라마이다. 책은 이 드라마가 던지고 있는 질문과 기획의도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저자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저자는 그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줄 키워드를 불교의 대승보살로 보았다. 그리고 '대승보살'이란 개념을 통해 '나의 아저씨'를 해부하고, '나의 아저씨' 야말로 깨달음의 노래이자 대승의 노래임을 보여준다. 아니, 반대로 '나의 아저씨'를 통해 '대승불교'를 설명해 내고, '보살'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책은 대승과 보살에 대한 색다른 형식의 안내서 같기도 하다.

저자는 '나의 아저씨'가 그리고자 한 '인간의 근원에 깊이 뿌리 닿아 있는 사람'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인간 '보살'과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세 가지 대사에 끌려 집필을 시작했다고 한다. "너 여기서 득도 못해. 나같이 지랄 맞은 년이랑 살아봐야 득도해" "달릴 때는 내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나 같아요" "나 이제 다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또 태어날 수 있어 괜찮아요" 저자는 이 세 대사를 중심으로 대승보살이라는 필터를 끼고 드라마를 되새기는 과정에서 재가보살인 유마 거사를 마주하기도 하고 원효와 니체, 그리고 보살 예수를 만난다. 무상(無常)을 만나고 무주(無住)를 만나고 공(空)을 만난다. 자리이타(自利利他)를 만나고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을 만난다. 이렇게 같은 길을 걷는 따뜻한 도반들을 만난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진실한 '보살'의 모습을 그려낸다. 물론 우리가 진짜로 만나게 되는 보살은 드라마 속 등장인물인 동훈, 겸덕, 정희, 지안… 그리고 후계동 사람들이다.

저자는 "'각자도생'을 생존의 지혜처럼 되뇌이는 지금의 현실은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고 병을 앓는 '유마 거사'와 같은 대승보살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보살의 마음은 타인의 고통에서 공감하는 연민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그 보살의 마음을 한 드라마에서 만났고, 책은 그 둘의 변주를 기록한 것이다.

저자에 의하면 '괜찮아 괜찮아'라는 제목은 '나의 아저씨' 속 인물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와 공감의 말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안심이 돼요' '든든했어요' 등으로 표현되며 상대를 편안함에 이르게 한다. 이들이야말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살의 마음으로, 큰 수레(大乘)에 함께 타고 공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저마다의 터전에서 말없이 길을 걷고 있는 보살들이다.

이처럼 책은 평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대한 저자의 마음 깊은 헌정이자 보살로서의 삶에 대한 희구이다. 그리고 이기주의와 물신주의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사유와 공업의 한 사람으로 들어보는 죽비가 아닐까.

'쉼'에 시작하는 일곱 가지 명상



쉬는 마음
쟈 낄룽 린포체 지음
예셰 롱 코리아 옮김
담앤북스 / 1만7천원

쟈 길룽 린포체 〈쉬는 마음〉 개정판
완전히 새로운 번역과 편집 제목
2월 7~16일 은해사서 안거수행 지도

세계적인 티베트 명상 수행자 쟈 길룽 린포체의 방한을 앞두고 그의 대표작 〈쉬는 마음〉이 출간됐다. 이 책은 2019년 출간된 〈쉼의 기술〉의 개정판으로 완전히 새로운 번역과 편집의 책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일곱 단계의 명상은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길이며, 본질은 '쉼'이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현명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곱 가지 명상은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곱 가지 명상은 특정 종교 전통을 따르고 말고를 넘어 모든 사람의 삶과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 가지 명상은 서양인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서양문화가 모든 곳에 퍼져 여러 문화와 섞여 있기 때문에 '현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부의 명상은 바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과 연결되도록 돕는다. 첫 번째 명상, 기본 명상에서는 마음과 몸을 함께 쉬게 하며, 올바른 명상 자세를 익힌다. 두 번째 명상, 고요히 머무는 명상에서는 주의 집중 대상을 활용해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고요함을 찾는다. 세 번째 명상, 다듬어진 명상에서는 고요함을 명징함과 영감으로 발전시키며 내면의 에너지를 발견한다. 네 번째 명상, 통찰 명상에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명료한 시각을 키운다.

2부의 명상은 내면의 깊은 품성과 조화를 강조한다. 다섯 번째 명상, 깊은 마음 열기 명상에서는 자비심의 기초가 되는 무한한 평등심을 기른다. 여섯 번째 명상, 순수한 마음 명상에서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조화를 찾는다. 일곱 번째 명상, 개념 짓지 않는 명상에서는 본래의 순수성을 경험하며 마음의 와전한 자유를 누린다.

'깨달은 스승'으로 불리는 직메 오찰 갸초의 다섯 번째 환생자로 알려진 쟈 낄룽 린포체는 1988년 미국 시애틀에서 비영리단체인 낄룽 재단을 설립한 이후 전 세계 각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특히 저서 〈쉬는 마음〉을 통해 티베트 전통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명상법을 전수하고 있다.

쟈 길룽 린포체는 2월 7~16일 영천 은해사에서 한국 불자들에게 직접 안거 수행을 지도한다.

박재완 기자

깨달음,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통찰



알아차림의 기적
아남 툽텐 지음, 이창엽 옮김
담앤북스 / 1만7천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만약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

세계적 명상가 아남 툽텐 린포체의 대표작 〈알아차림의 기적〉에서 깨달음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며,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책은 지난해 말 출간 10주년을 기념해 개정판이 출간됐다. 2014년 출간된 〈알아차림의 기적〉은 지난 10년 동안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개정판은 번역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표지를 새롭게 바꿨다.

책의 저자 아남 툽텐 린포체는 "깨달음은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통찰"이라고 말한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특별한 수행을 하거나 심각해질 필요가 없고, 잔뜩 힘이 들어간 어깨를 풀어주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된다는 것이다. 단지 모든 걸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현듯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책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식이 지어내는 모든 것을 즉시 놓아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망상과 슬픔, 분노, 미움, 외로움, 불안, 시기심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사실 이는 우리 의식의 화려한 놀이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지어낸 허구를 없앨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고통, 집착, 착각, 강박이 일으키는 괴로움을 떨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순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새로 태어나 경이로움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과거의 나와 깨끗이 단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과거의 '나'가 죽을 때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처럼 티 없이 순수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상태로 내면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간마다 순수의식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깨어나는 순간, 개념적인 삶과 마음이 만들어낸 삶은 곧 사라져버린다"는 가르침을 전한다.

저자는 199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하고, 특정 종파에 국한되지 않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과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전하고 있다. 복잡한 불교 교리 대신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유머, 자신의 수행 경험으로 진리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 낸다.

박재완 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원형 탐구!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
역사상 대승불교 수행법을 최초로 정리한 유가행파의 수행론을, 인도찬술 유가행파 문헌과 최근의 연구 성과들도 반영하여 이론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규명하였다.
안성두 지음/신국판/무선/396쪽/값 25,000원

원효가 구축한 불교사상의 전모를 보다
분황원효불교사상사
세계적인 불교사상가이자 철학자 원효의 사상적 지형을 기반으로 하여, 구심으로서 원효와 원심으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상가 및 한국사상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고영섭 지음/신국판/양장/832쪽/값 50,000원

온 세대가 함께 읽는 〈소설 십우도〉
아이 찾는 아이
깨달음의 여정을 담은 십우도를 현시대 흐름에 맞게 재창조하여 철학적 의미와 문학적 재미,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살린 성장소설이자 SF/판타지 소설이다.
김태라 지음/사륙변형/양장/16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❼ 참사람이 되는 법



▶한줄 요약
쉘패스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고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내 마음속 주머니가 비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사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의 명상]
참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나
소인은 곤궁에 처하게 되면
난폭한 생각을 한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듯 보이는 내용입니다.

참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이어온 조사(祖師) 스님 가운데 제38대 임제 의현(臨濟 義玄)께서 주창하신 무위진인(無位眞人)을 가리키는 법구로서 차별 없는 참사람을 뜻합니다.

차별 없는 참사람이란 간단히 말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분별(分別)을 짓지 않는 마음을 지닌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에 분별이 없으면 한 순간도 산다고 할 수 없을 것만 같으나, 인과(因果)와 공(空)의 이치를 다 알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티끌만큼의 걸림이 없게 되니, 사네 죽네, 잘살고 못살고의 분별이 사라진 평안한 상태가 되어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자재(自由自在)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주머니와 같습니다. 주머니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하나 들어오면 그 순간 들어왔다는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들어온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생기게 되고, 마땅히 나가기 마련인 대도 불구하고 잃는다는 감정이 앞서서 끌내는 분을 참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의 마음입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인 대도 말입니다.

나가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들어온다는 전제가 있지만, 잃는다는 것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오는 잘못된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참사람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본래 비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이 되었건 일체의 모든 것은 주머니와 같이 들어온 만큼 나가게 되어 있으니 더 얻고 더 잃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참사람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초연하여 마음이 항상 여여(如如)히 흔들림이 없으니,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전혀 상관할 바 없는 무위진인(無位眞人), 즉 걸림 없는 참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마음의 소유자는 조금만 주머니에서 나가더라도 크게 잃는다는 난폭한 생각이 앞서게 되고,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큰 감정이 부풀어 늘 노심초사하게 됨으로써 마음이 항상 편치 못합니다.

주머니는 들어온 만큼 나가게 마련입니다. 나가는 것이 싫다면 들어오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어 있는 주머니와 같다고 생각하라. 그래도 아쉬운 마음의 집착이 생긴다면 그 집착하는 마음을 기도로서 극복해야 합니다.

> 참사람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 집착하는 마음이 일체 없습니다
> 본래 비어 있음 알고 있기 때문
> 쉘패스 명상, 비움 실천에 도움

쉘패스 명상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깊고 천천히 호흡하며, 내 마음속 주머니가 비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받아들이고, 비워진 주머니에서 얻는 평화로운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주머니에 물건이 차 있으면 손을 넣을 틈이 없어서 그 손은 시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비워진 주머니는 어떤 것도 걸림이 없으니, 마음 또한 그와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명상]
대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댓 잎 소리 변하지 않고
매화는 수많은 동삼(冬三)을 거쳐도 그 향기 그대로입니다.
바다는 쉼 없이 파도 쳐도 짠맛은 싱거워지지 않고
달은 만 번을 이지러져도 본 모습 달아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날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미를 둘 만큼의 그 어떤 일도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행(諸行)은 무상(無常), 모든 것은 변하고 소멸할 뿐입니다.

그러나 불생불멸(不生不滅), 즉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름하여 불성(佛性), 본래의 마음, 참 성품,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명상은 바로 본래의 참 성품을 노래한 것입니다.

무명(無明)에 의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비록 지금은 윤회의 고해(苦海)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굴레를 돌고 있으나, 부지런히 마음공부하여 하루속히 깨침의 경지에 다다라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노래입니다.

그리하여 대나무 소리가 달라지지 않듯, 매화의 향기가 변하지 않듯, 바다의 짠맛이 싱거워지지 않듯, 보름달이 이지러지지 않듯, 본 성품에 머물러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늘 살아 숨쉬는 불생불멸의 참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재촉과 희망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뜻이 더 담겨 있습니다. 대나무 소리와 매화의 향기, 그리고 바다의 맛과 달을 보는 것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즉 육식(六識)을 말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며, 생각하는 것은 알음알이입니다. 이것이 모여 업(業)이 되고 윤회를 낳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바람이 지나가듯, 그림자가 드리우듯, 모든 족적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지만, 분명한 것은 알음알이, 즉 업은 남아 계속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업은 내가 어떻게 태어나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업식(業識)의 작용입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이나 아귀, 지옥 중(衆)에 태어난다 해도 사랑의 업은 작용하고 맙니다. 그 과보(果報)는 증오의 고(苦)가 함께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업식에 의존하여 욕심과 감정에만 도취되어 살아간다면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껏 달리고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돌아보면 제자리, 윤회의 쳇바퀴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치지도 않으십니까? 이제 마음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볼 때입니다. 조용히 정좌하고 눈을 감고 생각을 놓으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쉘패스 명상은 이러한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쉘패스 명상은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실천입니다. 하루의 일정 중 몇 분이라도 호흡에 집중하며, 모든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쉘패스 명상은 우리를 본래 성품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줍니다.

대나무와 같은 고요한 마음, 매화와 같은 향기로운 마음, 바다와 같은 깊은 마음, 달처럼 변치 않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그대는 자비보살

(사)부산정각원 이사장 향공 스님

고난서 찾은 자비 원력…“약자에서 나 자신을 찾습니다”

출가 앞두고 교통사고로 3년 투병
도움 받아야 살 수 있었던 경험들
30년 이어온 자비나눔 서원의 계기

부산서 무료공양, 효 관광 등 열어
2022년 부산정각원 창립해 자비행
“진짜 복전, 중생 만나는 현장 있어”



향공 스님…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지리산 관음사에서 수행했으며, 군산 영봉사 및 순천 선암사에서 포교활동에 앞장서왔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성암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견강암 주지 및 사단법인 부산정각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위덕대학교에서 석 · 박사 과정을 마쳤다.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아 2020년 10월 21일 부산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2022년 9월 5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모범선행시민상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인생의 고난과 불행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질문에 대한 해답은 고난을 마주한 사람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인생 역전의 드라마로 감동을 전해주는 삶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 이 같은 인생 드라마는 부산 사상구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다.

팔과 다리 그리고 척추, 사지가 너덜거린 채 피범벅이 되어 병원에 들어가 뼈를 잇고 고정하는데 3년이 걸렸다. 몸을 일으켜 앉고, 걸음마를 연습하고 한 발을 내딛기까지 다시 2년이 필요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빛 아래 서기까지 무수한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하루하루를 버텨낸 스님은 복전(福田)을 일구기 시작했다. 향공 스님은 30여 년 동안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밥을 먹였고, 여행을 함께 갔고, 집집마다 방문해 반찬을 배달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향공 스님은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을 ‘복밭’이라고 했다.

“법당에 돈 넣는 함을 복전함이라 부르는데 진짜 복전, 복밭은 중생들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심신이 고단해도 밥 한그릇 먹고 힘내는 얼굴, 외로울 때 여행을 같이 가서 신나하는 얼굴, 추운 겨울 반찬을 건네며 전한 안부에 울컥하는 얼굴.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때 마음도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들이 바로 나입니다. 그들이 바로 일구고 가꿔야 할 복밭입니다.”

2월 8일, 부산 사상구 견강암에서 만난 향공 스님은 낡고 헤진 법복을 입고서 순박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다. 마치 흙을 갈고 엎어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소박함과 둔탁함이 따뜻한 정(情)이 되어 전해졌다.



2022년 7월 진행된 부산 고동바위공원에서 진행된 지역 어르신 만발 공양. 향공 스님과 견강암 신도들이 동참했다.



2024년 열린 부산정각원 창립 2주년 나눔행사 모습. 김치와 라면을 지역 사회와 나눴으며,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됐다.

나눔과 회향의 길, 따뜻한 발자취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산 초입에 위치한 견강암. 오르는 길에서 바라본 견강암의 외형이 독특했다. 사찰에서 흔히 보는 기와지붕, 나무 기둥, 색색 단청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법당 외에는 단촐했다. 부엌 상판 여닫이문은 고쳤지만 삐뚤고, 곳곳에 수리한 흔적이 가득했다.

“모두 중고에요. 새것은 사본 적이 없어요. 스님 옷도 너무 낡아서 버리면 주워와 다시 입습니다”라고 옆에서 말을 보태는 원주보살에게 향공 스님은 “뭐 어때. 입을 수 있음 되지. 이게 좋아. 일하기에도 편하고”라며 말을 막았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나눔에만 2억원 가량을 사용했다. 하지만 건물 불사에는 헛투로 돈을 쓰지 않았다. 추운 날 옷 한 벌 사 입지 않는 스님이다.

“가사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 귀한 기도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 모든 회향이 목표이고 바른 회향으로 복을 주는 것이 스님의 서원이다.

향공 스님의 나눔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부산 북구 만덕에서 대성암이란 포교원을 열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스님은 국수를 삶았다. 포교원으로 문을 연 대성암은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산 쪽방촌에 위치했다. 쪽방촌을 불사해 만든 6평 공간에 법당과 공양간을 채우니 스님은 겨우 몸을 눕힐 수 있었다. 쪽방촌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국수를 삶기 시작한 스님과 불자들의 봉사에 매주 사람들이 늘어났고 800여 명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대성암 앞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국수를 삶을 수 있었어요. 놀이터에는 수도시설도 있어 그나마 좀 더 편리했죠.”

스님의 국수 만발공양은 입소문으로 전해졌고 부산 각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 힘들지 않드냐’는 질문에 스님은 “신바람이 났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국수 공양에 이어 스님과 불자들은 더 나눌 것을 고민했다. 매년 겨울이면 춥고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눈에 밟혔고 스님과 불자들은 김장김치를 담기 시작했다. 그즈음 공부해야 할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정이 또 들려왔다. 스님은 장학금을 마련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공부를 도왔다.

향공 스님과 불자들의 나눔이 이어지던 가운데 부산 만덕동 피난민 쪽방촌에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대규모로 진행됐다. 장소 변경이 불가피했지만, 나눔 원력은 멈추지 않았다. 스님은 지금의 견강암에 새롭게 자리를 잡고 부산 모라동 고동바위공원에서 만발공양을 다시 펼쳤다. 국수 뿐 아니라 메뉴를 발전시켜 절기마다 몸보신을 위한 영양식을 대접했고, 겨울에는 떡국을 나눴다. 어르신들의 무료함을 덜어 줄 레크리에이션 행사 공연도 진행해 만발공양은 지역의 잔치 한마당으로 발돋움했다.

고통 속에서 찾은 나눔의 길

이내 자비나눔 원력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졌다. 연유를 묻자, 이내 스님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향공 스님은 20대 초 지리산 관음사로 올라가는 길에 절벽에서 추락했다. 출가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유랑하며 마음을 정리하던 시간이었다. 모든 유랑을 마치고 관음사로 들어갈 때 맞은 편에서 트럭이 달려왔고, 트럭의 밝은 전조등에 눈을 뜰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다. 그 때 미쳐 앞을 보지 못한 스님은 절벽으로 떨어졌다.

심각한 부상으로 스님은 다리와 골반, 팔 그리고 척추가 으스러졌다. 3년 간 누워있어야 했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호사들은 밤새 스님의 곁을 지켰다. 6개월마다 대수술이 이어졌고 뼈를 깎아내고 붙여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당시 스님의 키는 178cm였지만 모든 수술을 마친 후 168cm로 10cm가 줄어들었다. 으스러진 뼈를 꺼내고 뼈를 이어 붙여 겨우 걷기 시작했을 때 스님은 출가했다.

“그 무엇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소변을 처리할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 없었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고등학교 때 큰 키와 몸집에 힘도 셌다. 스스로도 학교 친구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아픔을 겪고 도움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 강하다는 것도 약하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되지 못했다. 오직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랑하는 것만이 삶의 이유가 되었다. “출가해 ‘자비나눔’을 수행으로 살아가겠다”고 서원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주기 위해서다.

멈추지 않는 30년 자비나눔 원력

서원이 두텁기에 어떤 역경도 자비나눔을 향한 스님의 굳은 의지를 막진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모임이 중단됐을 때에도 스님은 도시락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가호호 밑반찬 나눔’을 위해 부산 모라동 주민센터와 통장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추천 받았고 반찬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당시 방문했던 가정이 500가구였고, 특별히 33가구를 별도로 추가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지급했다. 더운 여름에는 보양식을 도시락에 담아 고동바위공원을 찾던 어르신들에게 전달했고 동지엔 팥죽을 끓여 집마다 방문해 전달하고 모두가 건강하시길 기도했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2010년부터 계속됐다. 스님은 정초를 맞으면 돼지저금통 108개를 신도들에게 나눠줬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지가 되면 저금통을 받은 불자들은 견강암에 방문해 그동안 모은 동전을 전달하고 인재불사에 동참했다. 장학금은 동지와 산신재, 백중기도 등 기도를 회향하며 학생들에게 전달됐고 매년 1000만원 가량을 후원하고 있다. 108개 저금통을 모아도 금액은 턱 없이 부족했다. 그 때마다 향공 스님은 모든 기도비와 자신의 사비를 털어 보태곤 했다.

만발공양과 장학금에 더해 향공 스님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굶주림보다 외로움이란 정서적 허기가 안타까워 새로운 프로젝트 효(孝)관광을 마련했다. 2018년과 2019년 그리고 2023년과 2024년에 노숙자와 지역 어르신을 위한 무료 효관광을 진행했다. 참석 가능한 대상자 연령을 70대로 높여도 희망자는 계속 늘어났고 관광버스 총 13대를 준비해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렇게 버스를 마련해도 결국 선착순으로 끊을 수 밖에 없었어요. 더 늘리고 싶어도 봉사자 인원이 부족했고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죠.”

스님은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답을 했다. 무료 효관광이면 경비가 풍족해야 할 텐데 어떻게 마련하냐는 질문에 스님은 짧게 ‘가피’라고 답했다.

“100여 명 정도의 후원자들이 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힘들 때는 후원이 많이 줄기도 하고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족한 금액 만큼은 어디선가 후원금이 들어와요. 나눔을 위해 일을 벌이면 부처님께서 어디선가 도움을 주셨고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향공 스님은 30여 년 동안 나눔을 이어왔다. 불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했지만 더 많은 이들을 후원하고 돕기 위해선 또 다른 이름이 필요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공양을 올리고 함께 복을 일구기 위해 2022년 11월 1일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을 창립했다. 꾸준히 회원이 증가해 현재 100여 명의 후원회원이 활동 중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향공 스님은 “나 자신을 만나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가 살아갈 이유는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약하고 외로운 그들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술을 마시고 무료급식을 받으러 와서 상을 엎는 사람. 외로움에 손을 잡고 여행을 가고 싶다던 노숙자. 빨리 밥을 내놓으라며 화를 내는 사람.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만납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저의 모습이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것이 부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랑, 그 외에는 별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❸ 정채봉의 〈첫 마음〉

▶한줄 요약
새해는 새로운 서원을 세우기 좋은 시기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원을 세운 가장 첫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언제나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날마다 서원의 깊이는 깊어진다. 정채봉 시인은 '영롱한' 첫 마음으로 늘 새로운 삶을 살길 권한다. 2025년 한해는 발심, 휴식, 정진의 균형이 갖춰진 한 해가 되길 바래본다.



초심,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음
〈初心〉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새해. 소원을 빌었는지, 서원을 세웠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마지막 해넘이와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명소를 찾아 떠난다. 지는 해를 보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것이다. 누군가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술과 담배를 끊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보낸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을 빼겠다고 다짐하는 이들도 있다. 모두들 함성을 지르며 결기를 보이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웬만해서는 3일을 넘기기도 어렵다. 그럴 때마다 '역시 작심삼일인가!'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인다.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우리는 뜨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었는지, 서원을 세웠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원(所願)이 '~해주세요'라는 구조라면, 서원(誓願)은 '~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의미한다.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와 '담배를 끊겠다'는 것은 질적으로 아주 다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원이 아니라 서원이다. 서원을 세웠다 해도 3일이면 무너지는 것이 현실인데, 소원을 빈다 해서 그 바람이 쉽게 이루어지겠는가. 어림없는 소리다. 삶의 변화는 서원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새로운 마음을 다졌는데도 몇 일만에 무너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업(業)의 에너지 때문이다.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쌓인 습기(習氣)가 생활의 변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거의 업이 현재의 다짐을 압도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새해 첫날 금연을 결심하고도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십 년 동안 피워온 에너지가 금연의 기운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런 일이다. 금단 현상 때문에 고생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는 어설픈 소망이 아니라 강력한 동기와 결심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악착같이 명소를 찾아 일출을 보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지' 굳게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명언이나 시 등을 찾아 인터넷을 검색해본다. 이번에 소개할 시 역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하려는 이들이 좋아해서 많이 찾는 작품이다. 과연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을 읽으면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정채봉은 시인보다는 동화작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등단도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꽃다발〉이라는 동화가 당선되면서 이루어진다. 그는 〈샘터〉라는 잡지의 편집을 맡으면서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다. 참신한 기획과 아이디어가 돋보인 잡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들로 넘쳐났다. 특히 그가 직접 쓴 '생각하는 동화'는 〈샘터〉의 상징과도 같았다. 당시에는 서점에서 작은 크기의 잡지를 읽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는 1978년부터 2001년까지 20여 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된다.

불자들에게 정채봉은 〈오세암〉이라는 작품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다. 설악산 오세암의 전설을 동화로 만든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밖에도 〈생각하는 동화〉를 비롯하여 〈물에서 나온 새〉 〈스무 살 어머니〉 등 많은 저서가 있다. 정채봉은 2001년 간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무척 안타까워하는 대목이다. 왜 좋은 사람들은 세상을 일찍 떠나는지 모르겠다는 누군가의 푸념이 떠오른다. 아쉬운 마음이 컸던지 2011년 그의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채봉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그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시 '첫 마음'을 읽어본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 첫 출근하는 날 신발 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소원 성취, 초발심이 중요
실패는 쌓인 업(業)이 원인
힘들 때 쉬는 지혜 있어야
발심·휴업·정진으로 결실

폐업인가, 휴업인가?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해를 살 수만 있다면 세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 속에 등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예컨대 스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 깎던 날의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한국불교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다. 군대 첫 휴가를 나와 부모님을 뵈었을 때의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아이와 처음 마주했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한다면 순간순간이 새롭고 깊어질 것이다.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마음으로 손님을 대한다면,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만큼 첫 마음을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는 뜻이다. 초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교에서도 첫 마음을 매우 중시한다. 〈화엄경〉 전체를 210자로 압축한 의상 대사의 〈법성게(法性偈)〉에서는 '첫 마음을 내는 것이 곧 바른 깨달음(初發心是便正覺)'이라고 강조했다. 불교에서 목표로 삼는 깨달음이 바로 초심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출가(出家)와 가출(家出)의 기준을 여기에서 찾는 이들도 있다. 즉, 마음을 내고 머리를 깎으면 출가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깎는다면 가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초발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첫 마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마음을 새롭게 내지 않으면 과거의 업(業)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굳이 초심을 다시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발심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첫 마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지난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삶의 질적 전환을 위해 발심을 하고 서원을 세웠다 해도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 쌓은 업(業)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삶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치 또한 그와 같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3월이 되면 사람들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즉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한다. 겨울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오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 역시 현재의 업(봄 기운)이 과거의 업(겨울 기운)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봄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법은 단순하다. 봄을 봄답게 느끼기 위해서는 따뜻한 기운이 차가운 기운을 압도하면 된다. 자연에서는 시간이 그 일을 담당하지만, 인간의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살겠다는 강한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불교에서 참회와 발원, 행원(行願)을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첫 마음을 내더라도 과거의 업 때문에 이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 사람들은 '난 역시 안 돼' 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만다. 새해 첫날 금연을 굳게 다짐하고 3일 만에 그만 두는 것이다. 이는 마치 제 2의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게를 차리고서 일이 힘들다고 문을 닫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가게를 완전히 닫는 폐업이 아니라 잠깐 동안의 휴업이다. 과거의 업이 현재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잠시 쉬는 것이다. 짧은 휴식을 취한 다음 마음을 다잡고 가게 문을 다시 열면 된다. 마음속에 'open'과 'closed' 두 개의 팻말을 준비하고 지혜롭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에겐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임시휴업이 필요하다.

'첫 마음을 잃지 않으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初心不忘 磨斧作針)'는 말이 있다. 공부에 싫증을 느낀 이태백이 산을 내려오다 시냇가에서 도끼를 갈고 있는 한 노파를 만났다. 왜 그렇게 열심히 도끼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바늘을 만들기 위해서란다. 이태백이 웃으면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하자, 첫 마음을 잊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노파는 말한다. 천둥 같은 사자후에 이태백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공부에 매진한다. 초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다.

정채봉 시인도 지적한 것처럼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새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매일 매일이 새롭고 깊어지며 넓어질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첫 마음을 낼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초심을 잃고 폐업을 결심할 즈음 음력설이 찾아오는 것이다. 설 명절을 계기로 다시 마음을 내면 되는 일이다. 작심삼일도 백 번을 거듭하면 1년이 훌쩍 지나간다. 그렇게 발심과 휴업, 정진을 반복하면 마음의 근육도 단단해지고 현재의 에너지 역시 과거의 업을 압도하게 된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맛볼 것이다. 그 맛에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북불교대학 학장〉

어싱과 온열로, 건강한 잠의 시작

※ 어씽(Earthing)이란, 한마디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지의 어머니와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음이온, 음전하, 음전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어씽을 하면 음전하가 몸에 유입되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염증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자연스레 밸런스를 찾게 된다.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판매 기념

전 구매고객 숨 어싱베개 (12만원 상당) 증정

어싱단자 포함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할인가
찜질(디톡스) + 어싱(맨발걷기) + 온열(체온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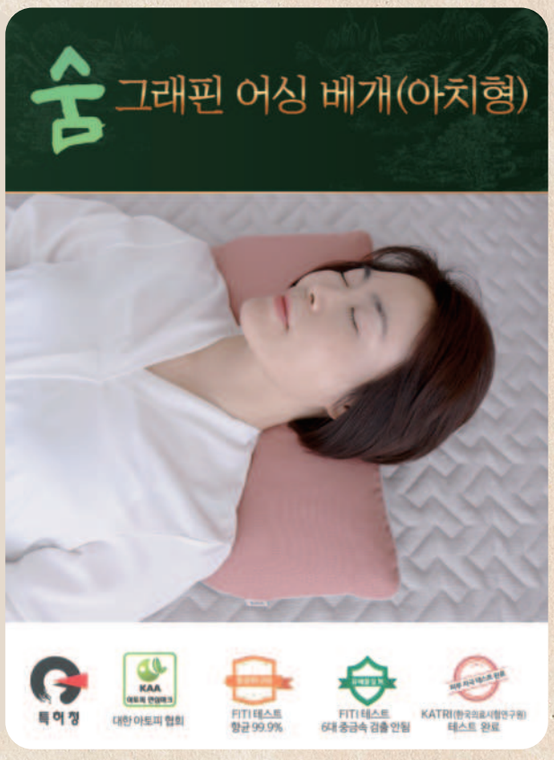
그래핀탄소어싱 온열매트(팥/S)
프리미엄 어싱매트 (팥)_싱글
판매가 2,380,000원



프리미엄 어싱매트 (팥/매쉬)_싱글 판매가 2,380,000원
프리미엄 어싱매트 (매쉬)_퀸 판매가 2,700,000원



케겔 음파운동기 판매가 1,580,000원



숨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판매가 120,000원
숨 그래핀 어싱 베개 (일자형) 판매가 95,000원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19호 | 15 | 전면광고

술 먹고 남의 방에 들어가거나 도박과
광대놀이 좋아하면서 나쁜 벗 사귀고
게으른 이는 훌륭한 사람에게 칭찬 못 받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선생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포교원건물
- 면적 : 120평실평
- 3층/5층, ev유
- 공원옆 건물, 주차가능
- 매가 : 13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총평수 : 380평
- 대웅전, 산신, 용왕,
  노천 해수관음상
- 요사채 30평(현대식 부엌)
- 매매 전세 가능

010-8409-824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매매 · 월세 가능합니다.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 농협 옆
- 1층 법당 外 약 60평, 신축 빌라식 3층건물
- 보증금 : 6000만원
  월 세 : 70만원(1층 근린)
  (별도 각각 30평 2,3층 복층 가능/매매가능)

010-5511-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군청 종합민원실 맞은편 능인선원 3층 건물 전체
- 3층 대웅전, 2층 아미타전
- 법당 및 고가 불교용품 포함
- 금액 : 7억 5천

010-3648-4997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부산 경남 울산·경북 경주 지역 사찰전문부동산

- 이 지역 사찰 매도하실 분이나 사찰 구하시는 스님 연락주세요. 거래 많이 이루어 집니다.
- 사찰직방(사찰, 포교당 매매 전문)

NAVER 블로그 사찰직방 검색

010-7348-314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토 지 안 내

- 위치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 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19호 | 16 | 전면광고

많이 외운다고 이익될 것 없으니 잘 외운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한 구절만 알고 도를 깨우침만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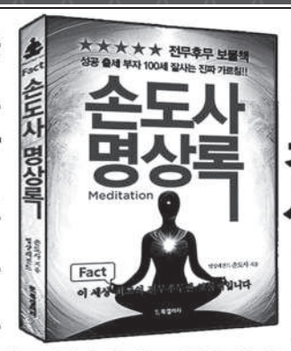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 천도재 ·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 금요일 3시~5시
- 일반불자 수강가능

조은사 (경산역 부근)

010-5315-3589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제2기 수강생 모집공고

1.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참여가능)
- 불교신자 및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2.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경전반 :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제반의식
- 의식반 :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 등

3. 교육일정
- 경전반 : 2025년 3월 17일(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 의식반 : 2025년 3월 11일(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4. 교육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5.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스님을 구합니다

오래 계시면서 조용한 절 찾으시는 스님 모십니다.
대구 백안삼거리 인근 사찰

010-9363-2292
010-3805-2778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④ '나의 해리에게'(2024)

'나'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다

마음의 병 중에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만큼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도 없다. 특히 단순히 기억을 못하는 기억상실증에 비해 한 사람 안에 둘 이상의 인격이 사는 다중인격은 훨씬 강렬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작품만 꼽아봐도 영화 〈장화, 홍련〉(2003), 〈킬미, 힐미〉(2015), 〈하이드 지킬, 나〉(2015), 〈3인칭 복수〉(2022)을 비롯한 여러 영화와 드라마들이 있었다. 이번 지면에서는 최근작 〈나의 해리에게〉(2024) 이야기를 해보자.

PPS 방송국 아나운서 주은호(배우 신혜선)는 14년 차 아나운서다. 짧지 않은 경력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다지 유명하지도 않으면서 까칠하기만 한 캐릭터로, 8년을 사귄 동기 아나운서 정현오(배우 이진욱)와는 4년 전에 헤어지고 떨떠름하게 지내고 있다. 한편 미디어N서울 방송국 주차관리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주혜리(배우 신혜선)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정함과 항상 앞머리를 내려서 얼굴을 가리는 소심함을 동시에 지녔다. 미디어N서울 아나운서 강주연(배우 강훈)에게 호감이 있지만 나서지 못하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둘의 관계가 호전될수록 혜리는 점점 얼굴을 드러내는 용기를 얻는다.

이쯤에서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혜리는 은호의 또 다른 인격이다. 새벽방송을 하기 위해 오전 4시에 일어나는 아나운서 주은호가 잠들었다가 오후 4시에 다시 일어나면 주차관리소 직원 주혜리가 된다. 은호와 혜리는 각각의 인격일 때 겪은 일들을 그저 꿈이라고 생각한다. '은호'이자 '혜리'로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은호. 그렇다면 진짜 은호는 누구인가? 또는 은호에게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을까? 아침에 길을 나설 때의 마음과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이 사람을 대할 때의 나의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나'인가? 어떨 때는 마냥 너그럽다가도 또 어떨 때는 한없이 엄격한 나를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양한 가면을 숨기고 있는 사회적 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섯 가지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 다섯 가지 덩어리는 육체적인 요소 한 가지와 정신적인 요소 네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육체보다는 정신이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여기는 것과 달리 불교에서는 육체와 정신이 '화합'한 상태가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너그러울 때의 '나'도 나이고 엄격할 때의 '나'도 나이며, 아침과 저녁의 다른 마음 역시 모두



ENA · 지니TV '나의 해리에게'.

육체와 정신이 화합한 상태가 '정체성'
상처 스스로 치유하며 어른으로 거듭나
불자라면 애초부터 상처 없음 깨달아야

'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늘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데, 변하지 않는 나를 찾으려고 하니 진짜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다중인격'의 정확한 표현은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한다. 은호의 다른 인격인 '혜리'는 사실 은호의 동생 이름이다. 은호와 혜리는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들도 마다하는 자매를 먼 친척 할머니가 거두었다. 활발한 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나운서가 되었지만 워낙 소극적인 혜리는 세상에 나서지 못하고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다. 보다 못한 은호가 사회성을 익히라며 혜리를 억지로 졸업여행에 보냈는데 그만 실종되고 만다. 언니밖에 모르던 동생이 최종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처리가 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은호의 죄책감이 동생의 인격으로 나타났고, 동생의 일기장에 적혀 있던 소망대로 은호는 혜리가 되어 주차장에 취직한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드라마의 제목은 〈나의 '혜리'에게〉가 아니라 〈나의 '해리'에게〉이다. 그러니 은호의 '나의 혜리'는 동생을 지칭한다기보다는 해리장애를 겪고 있는 은호의 '나의 해리'를 가리키는 셈이다.

이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은 남자주인공들의 사연이다. 은호가 동생 혜리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듯 은호의 연인 정현오와 혜리의 남자친구 강주연에게도 과거의 깊은 상처가 있다.

현오의 아버지는 도박중독자였다. 어릴 때 어머니가 도망가고 아버지는 도박 빚 갚는 심부름을 늘 현오에게 시켰다. 그러다가 집에 불이 나면서 아버지는 죽고 고등학생이었던 현오는 보육원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다. 이때 아버지가 돈을 빌리던 도박장 전주가 현오에게 아버지의 빚을 탕감해줄 테니 자신의 집에 와서 살라고 제안한다. 조건은 단 하나, 전주 자신과 동료들이 늙으면 돌봐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처럼 도박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살던 남매들도 데리고 오면서 현오의 집은 '가족 아닌 가족' 여덟 명이 사는 대가족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거 때문에 현오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

반면 주연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고 싶어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다. 그런데 집안의 자랑이던 형이 어릴 때부터 꿈꾸던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고, 주연의 임관식을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다. 형에게 큰 기대를 걸고 살았던 어머니는 모든 책임과 비난을 주연에게 쏟아내었고, 결국 정신이상이 생겨 병원에 있으면서 주연을 형의 이름으로 부른다. 주연은 형의 길을 걸으면 죽은 형이 행복해질까 싶은 마음에 전역해서 아나운서가 되었다. 형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이다.

제작사에서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를 소개하는 문구는 이렇다. "마음속 깊은 상처로 새로운 인격이 발현된 아나운서 '은호'와 마음의 상처를 꼭꼭 감춰 둔 구남친 '현오'의 새로고침 치유 로맨스." 소개 문구대로 은호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혜리를 향한 죄책감을 씻으며 '원래'의 은호로 돌아가고, 은호와 현오는 사랑의 힘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간다.

드라마에서도 표현되듯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릴 때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큰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은 아니다. 사유를 통해서든 종교를 통해서든, 또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든 상처를 극복하며 어른이 된다. 어린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러니 '철이 든다'는 아마도 이런 치유의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지.

그런데 불자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 상처받는 내가 있고 치유하는 내가 있다. '나'에 대한 관찰을 치밀하게 하면 '나'라는 것이 있을 자리가 없는 동시에 모두가 바로 '나'이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상처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기억하자.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하루 6번 예불 올린 삼계교
예불 방식, 복장 철저히 규정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⑦ 계교의 수행법

삼계교도들의 수행관은, 비단 걸식(탁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근기행법〉에 의하면, "하루에 여래장 등 사불(四佛)관, 걸식 나갈 때는 인맹(認盲)과 응불(應佛)의 관, 식사할 땐, 보친관(普親觀), 식사 전은 식부정관(食不淨觀), 일몰초야는 공무상관, 누웠을 때는 무상관, 반야 이후는 부정오문관(不淨五門觀)등의 삼계교의 중심적인 교의에 바탕을 둔 독자적 관법을 실행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수행관은, 삼계사(師)로 알려진 신방 법사의 기록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혜상(惠詳)의 〈자경록(自鏡錄)〉에는 "신도자비사승(神都慈悲寺僧)인 방(昉)법사는, 소년 이래 〈십륜경〉을 청학하며, 정근고행, 육시예찬, 상행걸식을 업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 '방(昉)법사'가 바로 신라 스님 신방 법사입니다.

삼계교의 예참(禮懺)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참'이란, 예배와 참회를 나타낸 말로, 삼보를 예배하고 자신의 죄과를 참회하는 것으로, 이눈 삼계교의 근행식(勤行式)인 칠계불명(七階佛名) 또는 예찬문(禮讚文)을 의미합니다.

삼계교에서는 특정의 부처나 경전을 믿고 정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즉, 모든 부처와 모든 법에 귀의하였는데, 그 예로 〈불명경〉 25불, 석가불등의 35불 등, 이른바 삼세(三世)의 모든 부처님에게 귀의 하는 것을 종지로 하기에 '보법(普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칠계불명'이란, 〈개원록〉또는 〈약칠계불명경〉1권의 '칠계불'로서, 특정이 되지 않은 부처를 칠계불명(七階佛名)이라는 '예배행의문'에서 창불하며, 예배를 실천하게 됩니다.

삼계교도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예불을 하루 6번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이와 같습니다.

"낮에 3회, 밤에 3회로 각기 엄밀하고 공경스럽게 향화·공양·행도(行道)를 하며, 예배 횟수는 새벽과 정오는 53불의 계(階)에 대해, 각각의 불명을 창불(昌佛)하고 다른 계(階)의 불명은 계를 총칭한 불명만을 창불한다. 해질 때와 초저녁은 35불을 각각 창불하고, 반야와 후야는 25불을 창불한다. 그런데, 불명을 부르는 사람의 태도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예를 들면, 불명을 부르는 이는, 반드시 천천히 부르면서 몸을 앞으로 굽히면서 절을 하고, 내쉬는 숨을 다 하면 입을 닫는다. 또, 예불하는 이가 몸을 앞으로 굽힐 때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가지런히 할 것이며, 결석해서는 안된다."

옷의 걸침에 대해서도 엄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에 대해 "모두 오직 상의의 오른쪽 어깨만을 드러내어 여법하게 하고, 옷을 전부 입은 상태로 멋대로 하거나, 수지해서는 안 되는 옷을 입거나, 오조(五條)가사를 걸치고 대중 가운데서 예불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는 자는, 벌칙으로 절을 백번 해야 한다. 단지 삼의(三衣)만 있어서 추울 때에 덮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육시예참 시에 자고 있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깨닫지 못한다. 일 배를 결(缺)할 때에는 즉시 벌칙을 받아야 한다. 또 예(禮)를 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 졸음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벌칙은 〈제법(制法)〉이라는 교단의 법으로서 지극히 엄중하게 처리됐습니다.

삼계교의 벌칙 규정에 대해 몇 가지 더 소개합니다. △서서(立席) 관불(觀佛)하는 지가 다리를 구부린 경우(100배) △관불당 내에서의 담화(100배, 3번이면 당 밖으로 내쫓음) △포살 이외의 날에 재봉, 체발, 세탁 (100배) △타인의 손 씻는 물병을 사용한 경우(100배) 등 일상적인 내용도 있지만, 강력한 규제가 담긴 규칙도 있습니다.

△단염불식자(斷鹽不食者)(교단추방) △남들과 싸워 알려진 자(교단추방) △타인의 장단점을 말한 경우(교단추방) △존비(尊卑) 예법을 위반한 자(교단추방) △대중에서 사계(捨戒)를 하려는 자(교단추방)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삼계교는 아주 소소한 생활상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각자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수행할 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그마한 일들로 서로가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삼계교의 규칙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송림사 주지〉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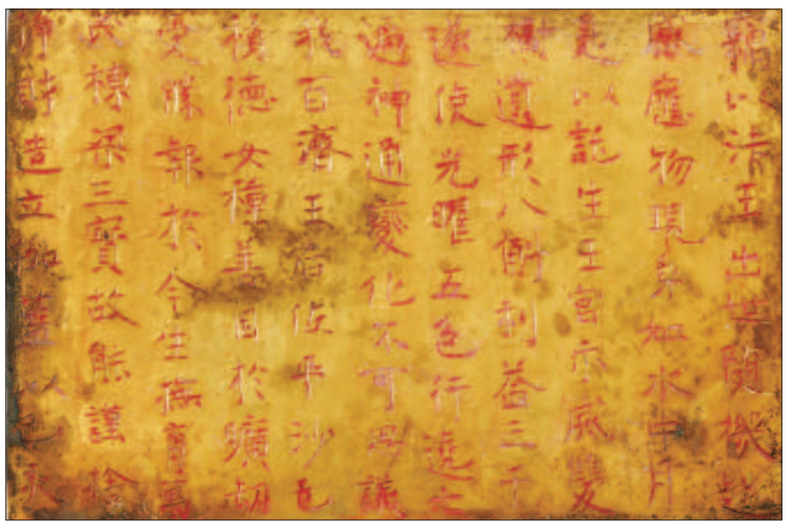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❹ 부처님 사리를 공양한 선근으로: 백제 사택왕후의 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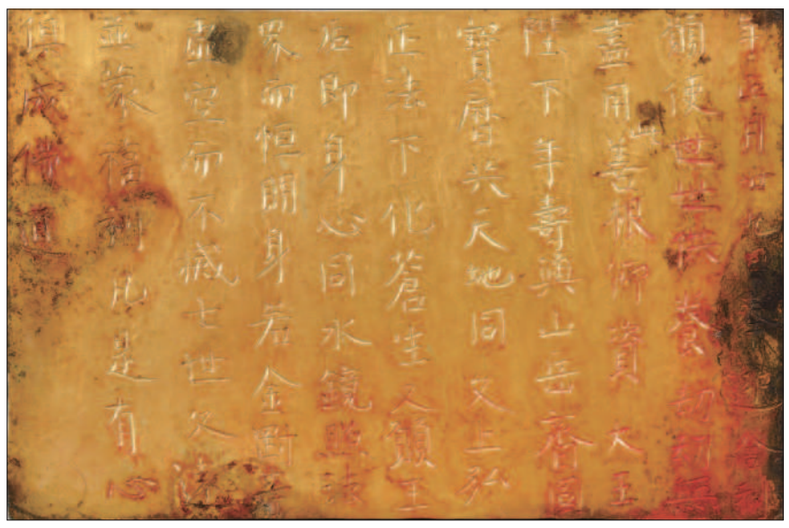
▶한줄 요약
사리를 공양한 공덕으로 마치 부처님처럼 법계를 비추는 깨달음과 금강과 같이 불멸하는 몸을 얻기를 발원했던 사택왕후. 그녀는 큰 서원에 걸맞게 자신이 지닌 재물을 내어 최고의 재료를 마련하고, 당대 최고의 역량을 지닌 장인들을 동원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사리를 공양했던 참된 불자였다.



백제 왕후 '여신성불' 발원 담아 사리 공양하다

〈女身成佛〉





미륵사지 서탑 출토 〈금제사리봉영기〉 앞면과 뒷면, 15.5×10.5cm, 국립익산박물관 소장, 국보. 사진제공=국립익산박물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국립익산박물관 소장. 사진제공=국가유산청



미륵사지 서탑 출토 금동사리외호와 사리내호, 높이(외호) 13.0cm, 국립익산박물관 소장. 사진제공=국가유산청

미륵사지 〈봉영기〉에 고스란히 담긴 사리 장엄구 면면
아름다운 그릇에 사리 모셔 '현생성불' 기원 백제 황후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아래 평탄한 대지 위에는 미륵사지 유적이 자리잡고 있다. 미륵사는 고대의 다른 사찰과는 달리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창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고, 사지의 서쪽 영역에 거대한 규모의 석탑이 남아 있어 일찍부터 학계의 관심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부터 미륵사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해방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전면적인 발굴 조사가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2001년에서 2010년까지 행해진 미륵사지 서탑 해체보수 조사는 백제의 역사와 미륵사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2009년 1월, 미륵사지 서탑의 해체보수 조사 중 탑 1층 내부의 심주석(心柱石) 안에서 사리공(舍利孔)이 발견된 것이다. 사리공은 탑 안에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을 뜻한다. 그 안에서는 〈금제사리봉영기(金製舍利奉迎記)〉(이하 〈봉영기〉), 삼중 사리호 세트, 수많은 공양물이 함께 출토되었다. 그중 가장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은 바로 〈봉영기〉이다. 작은 금판의 앞뒷면에 가득 채운 명문 중 "우리 백제 왕후는 좌평(佐平) 사택적덕(沙乇積德)의 딸로 재물을 희사해 가람을 세우고 기해년[639년] 정월 29일 사리를 받들어 맞이했다"라는 구절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선화공주와 사택왕후

〈봉영기〉의 발굴 이전에는 백제의 제30대 군주인 무왕(武王, 재위 600-641)과 그의 왕비가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널리 믿어졌다. 바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러브스토리 중 하나인 서동요(薯童謠)의 두 주인공인 서동(薯童)과 선화공주(善花公主)이다.

〈삼국유사〉 제2 기이(紀異) '무왕(武王)' 조에 의하면, 한미한 출신의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서라벌로 향했다. 서동은 밤마다 선화공주가 남몰래 자기와 만난다는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부르게 했다. 소문을 들은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궁궐에서 쫓아냈고, 결국 서동은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데 성공했다.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다. 후일 무왕과 그 부인은 용화산 밑 연못에서 미륵삼존을 뵈었다. 부인의 청을 받은 무왕은 이 자리에 미륵삼회(彌勒三會)의 모습을 본떠 전(殿)과 탑(塔), 낭무(廊廡, 회랑)를 각각 세 곳에 세우고, 절 이름을 미륵사라고 했다고 전한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13세기 이래 이 이야기 속 왕비는 선화공주라고 믿어져 왔다. 이 때문에 〈봉영기〉는 발견과 동시에 학계에 큰 파란을 일으켰다. 사찰과 탑의 건립을 주도한 주인공이 사택왕후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선화공주를 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4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백제를 다스린 무왕에게는 여러 비(妃)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화공주가 무왕의 초년을 함께 한 왕비이고, 사택왕후는 선화공주 사후에 맞이한 후비란 것이다. 이와 맞물려, 미륵사의 삼원(三院)은 일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사택왕후는 미륵사의 삼원 중 마지막에 완공된 서원(西院)의 창건주에 불과하며, 선화공주가 중원(中院)이나 동원(東院)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택왕후의 처지에서 본다면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봉영기〉의 발굴로 인해 1370년 만에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는데, 연구자들은 본인의 위상과 공헌을 자꾸 축소하려 드니 말이다. 비유하자면, 설화 속 첫사랑을 역사에 남은 부인이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랄까. 그렇다면 무왕의 왕비이자, 서탑을 세우고, 사리를 공양한 사택왕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봉영기〉의 내용과 사리장엄구의 면면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사리를 맞이해 모신 사택왕후

〈봉영기〉는 얇은 금판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11행씩, 총 193자의 글자를 새겨 만들어졌다. 한 자 한 자 획을 따라 주사(朱砂)를 입혀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한 배려가 돋보인다.

〈봉영기〉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된다. 첫째 단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 교화와 열반에 드신 이후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사리의 신통한 힘에 대해 공경을 표하고 있다. 둘째 단락에는 사택왕후의 가람 설립과 사리봉안에 대해 적혀 있다. 사택왕후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인연을 쌓았기에 이번 생애 왕후라는 좋은 과보를 받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백성을 잘 돌보고 삼보(三寶)를 후원한 왕후였으며, 정재(淨財)를 희사해 가람을 세우고 부처님의 사리를 탑 속에 모셔 그 공덕이 먼 미래에도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랐다. 셋째 단락은 사리를 공양하여 심은 선근(善根)으로 대왕폐하의 무궁한 수명과 왕과 왕후의 안녕을 빌고, 모든 존재가 다 같이 불도를 이루길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봉영기〉의 내용 중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셋째 단락에 나오는 '왕후즉신(王后卽身)'이란 구절이다. 이에 관해서는 '즉신'을 앞서 언급된 '폐하'의 존칭과 대구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한 의견이 제일 먼저 제기되었다. '왕후즉신'을 '왕후 당신'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즉신'을 지금의 몸으로 본 해석도 있었다. 왕후가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기를 발원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왕후즉신'을 '즉신성불하실 고귀한 분'으로 이해하거나 '즉신성불'의 관점에서 풀이한 해석도 있었다. '즉신'이라는 단어를 이 몸으로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즉신성불'의 준말로 본 것이다. '즉신성불'은 여성성불론의 전개 중에서 가장 발전한 단계에서 나온 이론으로, 여성의 몸을 남성으로 바꿀 필요 없이 여성의 몸으로 곧바로 성불할 수 있다는 '여신성불'에 해당한다.

어느 해석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택왕후가 탑을 건립한 공덕으로 무병장수나 극락왕생이 아니라 현생에서 성불하기를 기원했다는 지적은 울림이 크다. 우리 백제 왕후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불을 염원한 근기가 수승한 불자였던 것이다.

사리와 큰 서원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

미륵사지 서탑 1층 십자형 통로의 중앙에 서 있는 심주석은 방형의 석재를 삼단으로 쌓아서 만든 구조물이다. 사리를 안치하기 위한 사리공(舍利孔)은 맨 아래 석재 내부에 마련되어 있었다. 사리공의 바닥에는 먼저 두꺼운 방형 유리판을 깐 후, 그 위 네 모서리에 청동원형합 6개를 올려놓았다. 그 사이사이는 각종 유리구슬로 가득 채운 후 은제관식과 금제소형판, 직물에 싼 작은 칼 등 각종의 공양물을 놓았다. 그 위로도 각종의 구슬류와 직물류로 켜켜이 충전했으며, 가장 위쪽에 사리기 세트와 〈봉영기〉를 안치했다.

사리장엄구의 중심은 단연 삼중으로 된 사리기 세트이다. 금동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유리사리병을 차례로 중첩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유리사리병은 발견 당시 이미 파손되어 있어 형체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금동사리외호와 금제사리내호는 당대 동아시아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외호와 내호는 다소간 구조적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동체 부분을 돌려 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같은 독창적인 구조는 외호 안에 내호를, 또 내호 안에 유리병을 안치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장인은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사리호의 황금빛 몸체 위에는 소라고둥을 연상시키는 역동적인 소용돌이무늬, 연꽃잎무늬, 촘촘한 물고기알무늬 등을 새겨 빈틈없이 아름답게 장식했다.

금동사리외호 안에는 금제사리내호와 함께 금구슬과 모두 3892점에 달하는 다채로운 색상의 유리구슬, 향이 담겨 있었다. 또 사리내호 안에는 사리와 유리제사리병 파편을 비롯해 꽃모양의 금제 구슬, 대롱옥, 청색 유리구슬, 자수정 등이 모셔져 있었다. 작은 사리내호 안에도 모두 257점에 달하는 많은 유리구슬이 들어있었다. 유리병과 내호 사이, 또 내호와 외호 사이에 작은 유리구슬을 가득 채운 것은 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사리공과 공양구인 청동합 내부 역시 유리구슬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리공, 사리기, 공양구 내부를 구슬로 가득 채운 이 같은 장엄 방식은 현재로서는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서만 확인되는 백제 특유의 것이다.

사리를 공양한 공덕으로 마치 부처님처럼 법계를 비추는 깨달음과 금강과 같이 불멸하는 몸을 얻기를 발원했던 사택왕후. 그녀는 큰 서원에 걸맞게 자신이 지닌 재물을 내어 최고의 재료를 마련하고, 당대 최고의 역량을 지닌 장인들을 동원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사리를 공양했던 참된 불자였다.

〈리움미술관 큐레이터〉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대행 스님

하늘이 무너져도 한번 안으로 굴려서 내놓을 수 있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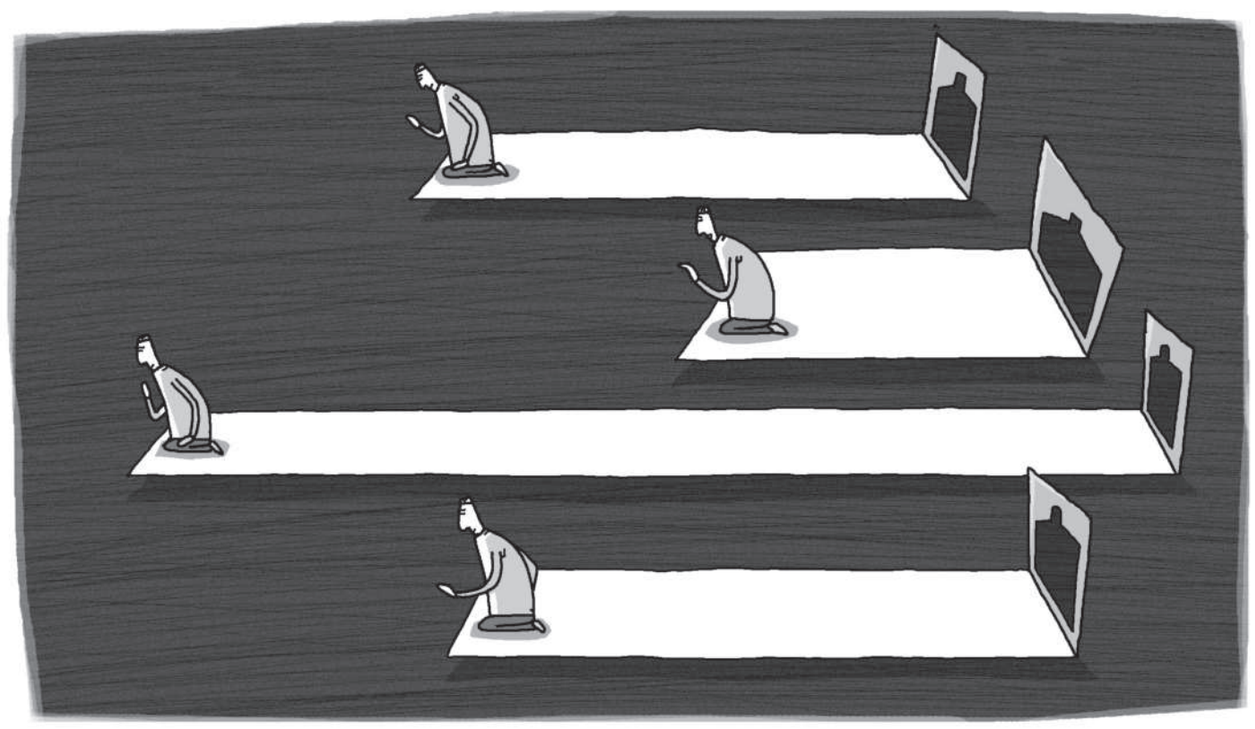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오늘 입춘이 돼서 정락 스님께서 못 오시게 됐습니다. 입춘이라 함은 봄이 오는 소식을 갖다 주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앞으로 다가오는 소식이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몸보다 마음으로부터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이런 것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 요새 한 팔, 한 다리가 떨어진 것처럼 나답지 못하게 색신이 아쉬웠습니다. 인연에 따라서 만난 지가 여러 해 됐고요. 아마 십 년이 넘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처음, 누구한테도 그래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랴. 누구한테 내가 가르침을 주랴. 사무장님 한 분 떠났는데 색신이 아쉬워서 이렇게 아픈 가슴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면 자격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통해서 한 번 죽고 한 번 살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생에 세 번 망하고 세 번 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허나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데에 팔자 운명이나 이런 것을 타파하고 그 고비만 넘긴다면 아마 오래 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너무나 그 죽고 사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관계상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기에 그런 생각은 조금도 안 했죠. '그렇지 않았으면, 과거로부터 한번 엮어 봤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당부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든지 '해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한다고,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거기 맡겨 놓고 일을 하십시오. 누구한테 물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끔 하기 위해섭니다. 의학 한 점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에 대해서나 또 가정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색신이 망가지고 그러면 일을 못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건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요즈음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한테 이익을 갖다 줄 수 있고, 여러분한테 거짓을 하지 않고, 누구를 팔아서 하지 않는다고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걸 실험을 해 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에 내려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거짓을 하려면 이렇게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다본다면 너무나 처참한 일이지마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풀 한 포기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답지 않게 글쎄,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말이 자꾸 막히는군요. 그래서 억지로 참으면서 인젠 좀 더…, 웃어 주세요. 우리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가시라 하는 것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수화풍으로써 뭉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속에서 공기가 나고 또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수차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재료가 있어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될 테죠.

그래서 우리는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하고, 청정함이 있다고 하고 또는 여여하다고 하고, 들이고 냄도 역시 육근, 육식이 십이처라고 하고 육근, 육경, 육식을 바로 십팔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데 합쳐진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어떠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얘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했지 아주 상세한 거, 이해가 가게끔 하는 거는 얘기를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 가설이 돼 있듯이 우주 법계가 그렇게 가설이 돼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라면 전부 세포에 가설이 돼 있듯이 정맥 동맥이 돌아가면서 세포에 가설이 돼 있는데 이걸 법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한 국토의 법계. 그러면 이것도 국토라고 할 수 있지마는 이 지구상도 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토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세포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세포의 모든 법계가 인간의 법계에 모두가 계합이 돼서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계합이 돼서, 즉 말하자면 가설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주하고도 가설이 돼 있고요, 혹성끼리도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인간마저도 지금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법상을 두드리시며)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질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 있는 거는 뭐냐. 우리가 첫째, 이것부터 얘기하죠. 여러분이 A형이라면 B형을 넣어서는 안 되죠, 피를. 기(氣)가 없고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땐 기를 돋워 주고, 병의 정체를 파악해서 그 모두를 딱 거기에 맞도록, 용도에 따라서 간암이면 간에 좋은 것을 딱 넣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에는 A형의 피를 넣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거와 다름없이 우리가 지금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가설이 다 돼 있는데 우린 지금 "거기다, 주인공에다 맡겨 놔라. 거기서밖엔 해결 못 한다." 할 때 가설이 돼 있고, 자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 눌러지듯 자동적으로 눌러집니다, 이게. 법계 이 자체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마음으로 사는 거냐, 냄새를 맡고 사는 거냐, 또는 먹고 사는 거냐.' 이 세 가지를 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중세계라고 합니다. 그럼 냄새 맡고 사는 세곈 어떤 세계냐? 그거는 죽어서 그냥 냄새만 맡고 사는 영령들을 말하죠. 마음으로 사는 세계는 어떤 거냐? 이 공부를 다 한 사람들. 그럼 마음으로 사는 건 자재하게 자재력을 가지고 찰나 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사는 세계, 마음으로 산다면 죽어서도 자기가 눈 밝고 귀 밝아서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면 배부르고, 생각하면 뭐든지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음으로 산다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벗어나야만이 진짜 마음으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일을 하세요

☞ 19면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단란한, 자유자재할 수 있는 찰나의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포에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체 만물만생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질적으로 의학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런 문제가 도달해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물질과학이면서 하나를 살리려면 하나를 죽여야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그게 아닙니다. 하나도 죽이지 않고, 아까 A형의 피를 넣는다 이랬죠? 그러면 피를 좀 얻어서 넣을 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내 형제라면, 내 피도 A형이라면 A형에 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마음 도립니다. 요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요게 한마음인데, 그 모든 약초나 뭐, 산에 있는 무정물, 생물, 동물이 전부 약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피도 A형에서 피를 뽑아서 바로 A형에 넣어 주면 그게 약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감자 물이나 뭐, 이런 거를 먹으라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마는 그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액을 피 뽑듯 뽑아서 자연적으로…, 이 지금 가설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맡겨 놓고 할 때에 거기에서 그 병이 어떤 건지 벌써 알고,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기가 어디가 부족한지 알고 거기에서 바로 직접, '그 물질이 어떠한가. A형인가.' 하고선 그것이 전력이 오듯 스스로 와서 여기에서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포기 하나도 같이 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급할 때는 어떠한 식물이나 어떠한 동물이나 어떠한 생물, '생물' 하면 다지마는 어디에서든지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자동적인 바로 보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그 보배는.

그래서 '주인공이다' 하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체가 없기 때문에 찰나 생활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인공의 위력은, 그렇게 찰나찰나의 용도에 따라서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내가 A형이라면 여기에서 A형으로다가 뽑아내서 여기다가 기를 넣어 줄 수 있고, 또 모든 병에 적절하게 약을 써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 불가사의한 일을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인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몰라선 안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부처는 어느 신이 내려오고, 무슨 어느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부처요, 모르면 중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다. 같이 항상 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지, 그걸 알면 즉 부처다 이거야. 그리고 마음을 내서, 이를테면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법신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법신이자 모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것이 다 용도에 따라서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왜? 자기한테 닥치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나가니까. 천백억으로 화해서 다 이렇게 나가니까. '천백억이다' 하는 것은 숫자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공부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불가사의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족히 이것을 하지 않고 간다면 영원토록 윤회에 말리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인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업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모든 것이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끝 간 데 없이 가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대로 그것이 유전을 통해서 자식들 대에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는 위대로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이치가 되고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위로는 조상들의 은혜를 갚고, 길러 준 은혜를 갚고 또 뼈다귀와 살을 준 은혜를 갚고, 그렇게 하고 아래로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그 인과로 만난 악업 선업들을 다 교화하고 보살로 만들고, 또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한테도 뿌리를 도와줘서 가지와 이파리가 싱싱하고, 대대손손 자식을 낳아도 이파리가 싱싱하고 가지가 싱싱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문제죠. 이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생각에서 엄청난 게 벌어지고 한생각에서 엄청난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부처님 법이냐? 아니다. 그럼 무쌍히 벌어지는 게 법이냐? 아니다. 그건 자유자재하는 거다. 그냥 내가 그대로 하고, 지금 용도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가는 그 자체의 뜻을 알면 그것이 바로 자유자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를 한 번쯤 관찰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형성시켰으니까 자기 죽고 사는 것도, 자기가 2세들을 길러 놓고 또 위로는 모시고 그럭하고서 일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하고선 자기 몸뚱이를 벗어도 괜찮게끔, 자기가 주인공에서 형성이 됐으니까 거기다 모든 걸 놓고,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서 관해서 맡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십시오.

내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 탓이지…. 그런 거를 본인은 그렇게 생각도 안 했겠죠. 본인은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 그게 욕심이냐?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도 보살행입니다. 가정을, 자녀들을 그냥 놔두고 가는 그것도 우리가 건져 주는 일이 못 되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모두 희생된다면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하는 것만치 해서 자기가 가도 괜찮다 할 때 갈 수 있게끔 자기도 한 번쯤은 관해 보는 여유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공부를 하면서도 실천이 없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부처님 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한번 관해 보고, 한번 실험하고, 이렇게 통해 보고, 지켜보고 이러는 연구가 없이는, 여유가 없이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수 없다면, 시험해 볼 수 없다면, 실천에 옮겨 볼 수 없다면 여기 와서 이 공부는 해서 뭘 합니까? 듣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학식적으로 이 머릿속에 넣었다가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스스로 우러나와서 두뇌를 통해서 대뇌를 통해서, 다 계합이 돼서 한번쓱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서 딱 놓을 때는 거죽으로 현실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한번…. 우리는 항상 지켜봅니다.

내가 소심한 거 같지 않아도, 다 놓고 살지만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들러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 모두가, 풀 한 포기도 나는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안 계셨더라면 내가 이 도리를 어떻게 실험해 보고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또 풀 한 포기도, 어떠한 벌레 하나도, 나무 한 가지도 내가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내 어찌 이 도리를 알았으리까? 그러니 내 스승이자 바로 내 벗이요, 내 도반이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부처 되려고 이날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 여러분이 이 뜻을 잘 아셔서 말도, 곧은 이 마음,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도리를 아신다면 너그럽고 자비하게 넓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안으로 굴려서, 아무리 속상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한번 안으로 굴려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고, 한 걸음을 떼어 놓더라도 한번 안으로 굴려서 여유를 가지시면 한 발을 떼어 놓을 때 백 발 뗀 거보다도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경설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백팔배를 한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한다고 그래서 일이 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외워서 잘 통해서, 아침마다 염불을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슴에 닿고 실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면서 겪어 보고 실험해 보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의사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관세음이 되고…. 그러니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관세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관해 보고 관해 듣고 말하시고 이렇게 사시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관, 세, 음! 허허,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빼놓고 무슨 관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빼놓고는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도, 상표도 없습니다. 지장이라는 그 상표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상표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에서도 벗어나서 진짜 자유자재성을 가지고 찰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만 되지 죽어서도 이렇고 지금도 슬슬 냄새나 맡고 그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서 항상 고통을 받고 끝 간 데 없이 유전과 그 모든 것의 고통을 받는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자체가 참,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벌어지고 일이 생기고 얽히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두가 가설이 돼서, 세포에도 가설이 되고 그래 가지고 이 몸에도 항상 같이 가설이 됐다. 이 우주와도 가설이 돼 있고 이 지구와도 가설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거는 지구만 가설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피 좀 달라고 그럴 때 피는 자동적으로 여기 기를 넣어 줘.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알아서 응용하신다면, 그대로 자기를 자기가 관세음보살로 만들고 지장도 만들고 약사보살도 만들 수 있는 자기가 되면 이게 바로 금강신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그대로 자기를 자기가 관세음보살로 만들고 지장도 만들고
약사보살도 만들 수 있는 자기가 되면
이게 바로 금강신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2월 4일 일반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㉜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 분노 시리즈 (5)

당신 모습 그대로가 '기적'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은정(가명·23세)이는 차갑게 말하며 자신을 쳐다보던 엄마의 서늘한 눈빛에 금방 기가 죽었다. 은정이의 엄마는 완벽주의였다.

상담실을 찾은 은정이는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엄마 앞에선 언제나 자신은 한심한 존재"였다고 했다. 은정이의 어린 시절은 해야 할 의무와 숨 막히는 일정들이 빽빽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는 날에는 폭발하는 엄마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다.

은정이가 20대가 될 때까지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순종'. 자신의 모든 욕구를 포기하고 시체처럼 살았기에 엄마와의 관계는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다. 엄마의 강박과 불안을 사랑받고 싶어 떠안은 아이, 은정이의 어린 시절이 너무나 안쓰러웠다.

완벽주의의 분노는 통제라는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순간 날아온다. 완벽주의의 주 감정은 불안이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대비한다. 아이들에게 실수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의 실수는 완벽주의자에게 행복한 미래를 위협하는 불안요소가 되고 '반드시' 없애야 하는 문제투성이가 된다. 그들은 결코 도달하지 못할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불만족은 당연한 결과였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은정이의 노력은 예정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은정이의 엄마가 전형적인 완벽주의형 분노형이며, 다른 말로는 '체념형 분노'라고도 할 수 있다.

'체념형 분노'는 자신의 통제와 기준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놓아야 할 때 폭발한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조절할 수 없어 절망할 때 분노 촉발의 원인이 된다. 그들의 특징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계획이 침범당하면 폭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또다른 특징은 자신의 방향과 계획이 무조건 옳고 바르다고 믿는다. 자신의 계획이 무결하고 완전하기에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는 틀리고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또 누가 봐도 그들의 기준은 너무 높은데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준처럼 생각한다. 이 경우는 아이들에게 특히 강조된다. 또 시아가 좁아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들의 시각은 흑백으로 나눠져 중간이나 절충이란 있을 수 없다. 완벽주의형 분노는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악을 쓰며 노력한다. 하지만 결국 원하는대로 안되면, 좌절감이 극도로 높아져 우울감도 동시에 높아지는 단계적 특징이 있다.

개인적으로 손쉽게 적용해볼 방법으로는 먼저 차분히 자신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과감하게 기준을 낮추고 자신과 상대를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의 대부분은 목표가 포괄적이다. 불안이 그들의 마음을 휘두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높은 기준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성벽 쌓기이며 막무가내식이다.

완벽주의에 터져나오는 '체념형 분노'
한계 받아들이는 따뜻한 수용 필요해

자신의 바람과 기준을 쭉 적어보라. 구체적인 내용이 몇 개나 있는가? 예를 들어 "아이가 높은 성적을 받기를 원한다"는 막연한 바람이다. 구체적으로 바꾸면 "초등학생 아이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개를 외우고 그 중에 7개 정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바꿔야 한다.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수줍음이 많은 우리 아이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와 의논하고 도전 과제를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을 높이는 생각들을 적어두고 휘둘리지 않도록 알아차림해야 한다.

이런 특징의 분노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즉, 한계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하며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유약한 존재이다. 서로가 돕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수용해야 한다. 모든 것을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완벽함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에게는 죽음명상이 도움이 된다. 성취로 향하는 그들의 욕망을 잠재우는 중요한 도구가 되며 죽음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15여 년 전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해주신 스님께 전화 안부를 드린 적이 있다. 너무나 추운 겨울, 일일일식(一日一食)으로 생활하고 거주 환경도 열악해 스님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수행과 여러 안부를 전한 후 "스님. 날이 너무 춥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라는 말에 스님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답했다.

"계절에 따라 날이 추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겠지."

15년이 지나도 전화 끝에 전해진 단순한 답이 잊혀지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한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완벽함을 향한 돌진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함 받아들이고 자신이 기적임을 아는 것이다. 부족한 당신 모습 그대로 기적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건강 365

㉝ 십자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 방치하면 관절염까지

최근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 손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무릎 십자인대 파열은 흔히 발생하는 부상 중 하나로,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십자인대의 역할과 파열 원인

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로 나뉩니다. 이들은 무릎이 과도하게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며, 관절의 회전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방 십자인대는 스포츠 활동 중 큰 부담을 받는 부위로, 외부 충격이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인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주요 원인은 급격한 방향 전환, 갑작스러운 정지 동작, 무릎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 등이 있으며, 특히 축구, 농구, 스키 등과 같은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해부학적 구조 및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십자인대 손상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의 증상과 방치 시 위험성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초기에는 무릎이 붓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며, 걸을 때 무릎이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상 직후에는 심한 통증과 함께 '뚝' 하는 파열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감소하지만 무릎의 불안정성은 지속됩니다.

무엇보다 십자인대가 손상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반복적인 충격과 사용으로 인해 연골이 점차 마모됩니다.

이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조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대재건술의 필요성

십자인대 파열이 진단되면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결정됩니다.

부분 파열의 경우 보조기 착용,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및 재활 운동 등을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라 십자인대 부상↑
완전 파열시 '인대재건술'로 손상 인대 대체해야

하지만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수적입니다.

인대재건술은 환자의 자가건(슬개건, 햄스트링건) 또는 동종건(기증받은 조직)을 이용해 손상된 십자인대를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관절경) 수술법이 발달하면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여 출혈과 통증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무릎의 기능을 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초기에는 무릎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활 과정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 1년까지도 조금씩 회복하므로 꾸준히 운동과 치료를 병행하면 정상적인 스포츠 활동 복귀도 가능합니다.

예방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

십자인대 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둔근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 중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십자인대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상의 경우에는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릎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거인병원
Geo-in Hospital
051)996.7000
동래사직운동장앞
어깨·관절·척추, 정형외과 중점진료
세분화된 진료로 진단부터 치료까지!
광고심의필: 230622-중-155173
현대불교신문과 협약에 따라
구독자 비급여 10% 할인 제공

문선애 마취통증의학과 | 김종열 신경외과 | 최홍준 신경외과 | 이승준 대표원장 정형외과 | 민영경 병원장 정형외과 | 김상효 정형외과 | 박지혜 내과 | 염동헌 영상의학과
보호자·간병인 걱정없는 전병동&전병상
24시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법 일기

건강해야 포교도 합니다
스님의 다이어트 성공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여 간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포교국장 소임을 살았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동화사 포교국장 업무는 대부분 외부업무가 많았다. 아침공양은 절에서 해결 할 수 있었지만 점심공양, 저녁공양은 제 시간에 공양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밖에서 공양을 해결 하는 날이 많았다.

어릴 적부터 수제비, 칼국수, 라면, 등 면 종류의 음식을 즐겼고, 외부에서 업무를 보는 날이면 '면공양'을 했다. 하지만, 오랜 면공양은 건강에 빨간불을 가져왔다.

종합건강검진 결과 역시 최악이었다. 의사선생님은 필자에게 밀가루 음식 자제와 체중 감량을 제안하며, 건강관리를 강조했다.

지인의 도움으로 강원도 평창에 머물며 매일 걷기운동과 식단관리를 철저하게 했다. 3개월이 지나자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 그러다가 찾은 곳이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주사였다.

2021년 9월 화산이 가을 단풍잎 물들어 가는 시절 용주사 문화국장 임명장을 받았다. 친분이 없는 용주사 대중스님들과 교감, 낯선 환경에서의 업무 파악 등 하루 빨리 적응이 필요했다.

상월결사 걷기 순례 수행 인연으로 용주사에도 걷기 수행 바람이 불었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나오면 주지스님과 관장스님께서는 목에는 수건 한 장 걸치시고 맨발로 공양간 앞을 딱 지켰다. 필자와 교무국장스님과 함께 용주사 뒷산 화산(花山)에 가기 위함이다. 이는 주지스님의 제안이었다. 스님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저녁공양 이후에 화산을 오르자"고 제안했고, 주지스님, 관장스님, 교무국장, 필자로 맨발걷기 수행멤버가 결성됐다.

화산을 한 바퀴 도는 데 1시간이면 충분했다. 어른스님들의 옛 덕담을 벗 삼아 화산의 산길을 오르내리면 시간을 금방 흘렀고, 마음도 즐겁고 청정해졌다.

가끔 사중 국장스님들과의 저녁공양이 있어 산행이 어렵다고 말하면, 주지스님께서는 서운한 얼굴로 "잘 다녀오라"면서도 "일찍 와 기다리고 있을게"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곤 하셨다. 저녁공양을 빨리 마치고 경내 공양간으로 가면 주지스님과 관장스님이 준비를 마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제야 주지스님은 웃으며 "건강엔 절밥이 최고야"라며 항상 운동하라고 격려하셨다.

1년 동안 이뤄진 화산 산행을 통해 필자는 '건강'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몸무게도 15kg 넘게 감량했다. 건강검진 결과도 나날이 좋아졌다. 3년의 용주사 문화국장 소임을 역임하는 동안 이뤄진 화산 산행으로 이제 건강은 90%이상 회복됐다고 자부한다.

모두 화산 산행을 권유하고 이끌었던 주지스님과 관장스님의 공덕 때문이다. 약사여래부처님이 멀리 있지 않았다.



주지스님과 관장스님이 필자에겐 약사여래부처님이었다. 주지스님! 관장스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명진 스님
파계사 총무



송마나의 **시절인연**

詩, 언어의 사원

겨우 말문이 열린 손자가 할머니 집 현관에 들어섰다. 낯선 환경에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거실에 놓인 서양란을 보고 오종종 걸어간다. 가는 꽃대 끝에서 옹기종기 피어난 예쁜 꽃 앞에서 "꼬, 꼬, 꽃"이라고 말한다. 둥글게 펼쳐진 붉은 꽃잎이 닭 볏을 닮아 닭의 소리, "꼬꼬"라고 말한 것인가. 아니, 어린 아이가 벌써부터 시어(詩語)를 읊다니. 손자의 언어 사용이 미숙해서 완전한 단어를 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원초의 말이 터져 나왔다고 믿고 싶었다.

문득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유명한 문구가 귓가를 맴돌았다. 우리 인간은 깨어 있을 때도 말하고, 꿈속에서도 말한다. 책을 읽을 때도 말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말한다. 어떤 일에 몰두할 때도 말하고, 한가로이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끊임없이 말한다.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특별한 욕구에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언어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 아닌가. 인간이 말하기 전에 언어가 말한다. 인간은 말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언어가 말한다'고 할 때, 그 언어는 '존재의 언어'를 가리킨다. 인간의 발성기관과 청각기관에 의존하여 표현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은 존재의 참말이 아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존재를 팽개친 말은 헛된 말이며, 아무런 진리도 불러오지 못하는 말은 퇴락한 말이다. 언어란 인간의 존재 방식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응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존재의 언어는 근원의 언어, 생명의 소리다. 인간은 존재가 말을 걸어오면 그것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말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어를 통해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은 언어의 시원적 울림에 귀 기울이는 사유 속에서 존재에게 다가간다.



그림 · 최주현

존재의 언어는 인간의 일상 언어와 달리 정적의 울림이다. 존재의 언어는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나오지만, 그 은은한 울림소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존재 언어의 울림을 알아들으려면 인간이 존재를 향해 깨어나야 한다. 이렇게 깨어나서 존재의 언어를 시어(詩語)로 가져오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존재는 그 언어를 알아듣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 존재가 자신을 드러낼 터전은 인간이 아닌 어떤 곳일 수 없다. 존재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울려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순수한 언어가 시어다.

시(詩)는 말씀 언(言)과 절 사(寺), 두 단어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시는 언어의 사원, 부처님의 말씀이란 뜻 아닌가. 불법(佛法)이 바로 존재의 언어라는 것이다. 불성(佛性)은 삼라만상에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만 미혹에 잠긴 인간은 진여(眞如)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시인은 귀 기울여 부처님의 말씀을 시어로 드러낸다. 시인이 찾는 말은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낱말이 아니라 진리의 언어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다.

아이들이 말하기 전에 웃고, 울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침묵의 언어일 것이다. 어머니는 그 표정과 몸짓을 보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린다. 어린아이의 언어는 순수하다. 이윽고 아이는 말문을 연다. 태초의 언어가 시어로 터져 나온다. "꼬, 꼬, 꽃"

〈작가〉

기자칼럼

사찰음식, 세계를 사로잡다

최근 인기 예능 tvN STORY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에서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과 가족들의 한국 여행기가 방영됐다. 이들이 찾은 곳은 전라남도 장성의 백양사.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을 직접 만난 줄리안의 어머니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다큐멘터리로만 접했던 스님을 직접 뵙게 됐다는 기쁨과 더불어, 사찰음식까지 체험하게 돼 "꿈만 같다"고 연신 감탄했다.

이날 줄리안 가족은 정관 스님의 지도 아래 표고버섯 조청 조림, 시금치무침, 버섯전골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다.

스님의 레시피로 만들어진 사찰음식 한 상이 차려지자, 본격적인 먹방(먹는 방송)이 시작됐다. 줄리안 어머니는 처음 접하는 냉이튀김과 냉이콩가루국에 "향이 너무 좋다"며 젓가락을 놓지 않았고, 줄리안 아버지는 수삼튀김을 최애 음식으로 꼽았다. 특히 소금과 간장으로 감칠맛을 낸 비건 김부각을 맛보곤 "공장을 차려서 팔고 싶을 정도"라고 극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월 12일 13개국 주한대사관 부인들과 가족 20여 명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색다른 사찰음식 체험에 나섰다. 고사리·취나물·숙주를 직접 다듬고 무쳐 삼색나물을 만들고 오곡밥과 함께 맛봤다. 이들은 "음식에 담긴 정성까지 알게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사찰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정통적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사찰음식의 국가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전통 음식 보존'이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 요리가 아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식재료를 다루고, 최소한의 양념으로 본연의 맛을 살리는 정성이 깃들어 있다. 사찰음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사찰음식이 가진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AI시대에도 본질 변하지 않는다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의 발전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이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창작 능력을 보이며, 예술·교육·법률·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불교적 관점에서 AI의 진화와 그 의미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본다. AI의 급격한 발전 또한 무상의 법칙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쌓아온 지혜와 기술이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점이다. AI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성을 희석시키거나 정신적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금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

불교에서는 '연기(緣起)'를 강조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AI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이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나간다.

따라서 AI의 윤리적 문제, 정보의 왜곡, 인간의 책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은 연기의 이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결국 AI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모두가 함께 성찰해야 한다.

AI 통해 나타날 삼독심 경계해야
자비 지혜 바탕돼야 공존 가능해
中道 가르침, AI시대 필요한 해법

AI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를 이용한 주식 거래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이윤 추구로 인해 시장을 왜곡하거나, 생성형 AI가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이 탐욕과 집착으로 이어질 경우, 더 많은 이익을 좇아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AI가 의료 진단에서 오작동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인간의 판단을 배제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영상 판독 시스템이 암을 오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기계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따랐다가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AI의 진단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전통적인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마음가짐이며, 인간이 주체적으로 기술을 조절하고 윤리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AI 시대에도 결국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자비와 지혜, 그리고 윤리를 바탕으로 기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AI와 공존할 수 있으며, 보다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두 개의 날개가 조화를 이뤄야만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기술과 인간성 또한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AI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불교가 강조하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이야말로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대법원 판례와 장애인 접근권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25년이 시작되면서 1년 동안 추진할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 사찰의 장애인편의시설을 다시 살피게 된다. 불교문화 순례나 찾아가는 법회 등 일부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환경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사찰의 경내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불편한 게 많아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대법원에서 내린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의미 있는 판결을 살펴본다. 소규모 소매점에서의 편의시설 미설치 등으로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장애계, 법조계 등이 합심해 6년 정도에 걸친 소송 결과로 피고 대한민국이 장애인 당사자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건물 접근권과 관련, 장애인 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의 작은 실마리를 만드는 중요한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정부가 지체장애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원심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소매점 편의시설 미설치 6년 소송
지난해 12월 장애인 접근권 인정
'모두의 1층' 위한 노력들 이어져야

24년 넘게 고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98년 제정된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이상일 때만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전국 편의점의 3%(2019년 기준)만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 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것은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건물을 이용하도록 이들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향후 과제가 어떤 건지 장애계와 사회에 중요한 과제를 만들었다.

2025년 1월 24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법단체 두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김예지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모두의 1층'을 위한 접근권을 위해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1층 외의 다른 층으로의 접근권 확보, 편의시설 설치 시 임대인에게 시설 설치 의무 부여 등 모든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나왔다. 앞으로 정부의 실효적 접근권 증진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위에서 언급한 판례는 불교용품점과 종무소 등 사찰의 시설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란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불교계도 함께 깊은 고민과 대안들이 있어야 하는 시기다.

모두의 접근권 증진을 통한 행복추구권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에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고, 장애불자들의 수행의 접근권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모색과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社 說

동국대 '전법특임교수' 신설에 부쳐

동국대가 교내 전법을 담당할 '전법특임교수' 제도를 신설한다는 소식이다.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동국대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지도법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지위 보장을 통한 전법 활동 확대를 강조했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의 원력을 바탕으로 한다.

기실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의 신행활동을 지도하는 법사스님은 자신의 연구·학업활동이나 사찰 행정 업무 이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활동해왔다. 그러다보니 전법행의 집중도와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전문적인 불교 강의와 수행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장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동국대가 새롭게 전법특임교수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기존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의 책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캠퍼스 포교·전법 인프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는 지난해 동국대는 서울캠퍼스에 14개 단과대학과 일반대학원, 듀이카(구 전산원)에 불교동아리를, WISE캠퍼스에는 6개 불교동아리를, LA캠퍼스에도 1개의 불교동아리를 창립시키며 캠퍼스 포교의 새 장을 열었다. 지난해 불교동아리 창립을 통해 학생 활동에 기반한 포교 인프라를 구축했다면, 올해 동국대는 전법특임교수 제도 신설을 통해 포교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건학 120주년을 앞둔 동국대가 대학생 전법의 중심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

재건 원각사, 노인복지 성지되길

사회복지재단 원각이 추진했던 종로 원각사 재건 불사가 회향했다. 원각사는 고려시대부터 흥복사로 불리며 내려오던 것은 조선 세조10년(1464년)에 새로 낙성했다. 현재에도 남아있는 원각사지 10층석탑에는 부처님의 사리와 〈원각경〉 언해본이 봉안됐다. 하지만 연산군은 원각사를 연방원이라는 이름의 기방으로 만들어 폐찰시켰다. 창건 560년, 폐찰 520년 만에 원각사의 역사성을 계승한 새 도량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조계종 원각사는 2월 12일 이전한 도량에서 처음 보인 행보는 노인 무료 급식이었다. 이날 원각사 무료급식소 520년만의 도량 재건과 정원대보름을 기념하며 어르신들에 점심공양과 함께 땅콩, 콩 백설기, 두유 등 간식을 나눴다.

조선왕실의 원력으로 세워진 원각사는 노인 복지라는 시대적 화두를 담아내고 있다. 1990년대 보리 스님이 시작했던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는 노인 복지라는 말이 생소했던 시절, 소외받고 있던 노인들에게 무료 공양을 제공했다. 봉사와 시주로 운영됐던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를 현 원각사 주지 원경 스님이 계승했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탑골공원은 노인들의 섬이기도 하다.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은 한끼 식사도 근근이 이어나가는 것도 어려운 처지다. 이들에게 작은 쉼터 제공하는 것은 '자리이타'라는 대승불교의 기치를 계승하는 일이다. 520년만에 재건된 종로 원각사가 노인복지의 성지가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2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2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2월 1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5 신상

어싱 Earthing 슈즈 특별전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어싱 '겨울용' 방한 부츠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